

기독교학교 140년, 미래교육과 신앙 정체성을 말하다

사학미션, '기독사학 비전선포식·2025 콘퍼런스' 개최… 600명 참석
고명진 "다음세대 교육, 하나님 심어두신 씨앗 깨우는 일"
이재훈 "평준화 50년… 이제는 '평준화 2.0' 논의해야"
임태희 "공유학교·온라인학교… 미래교육 구조 전환 필요"
염재호 "21세기 사는 학생들, 20세기 틀에 가두지 말아야"
기독사학 비전선포… "교육의 자율성·선택권 지켜낼 것"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백선영 기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 대표들이 기독사학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백선영 기자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한국 기독교학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및 2025 사학미션 콘퍼런스를 최근 개최했다. 한국교계와 기독교학교 대표, 기독언론, 학부모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기독교학교가 한국교육과 사회에 남긴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신앙적 교육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학교는 배재학당이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다. 이후 한국 근현대 교육사에서 기독교 사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졌고, 오늘까지 기독사학의 뿌리로 평가받는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전국 종교계 사립학교 7,187개 중 기독교학교는 4,687개로 약 65%를 차지한다. 이는 종교계 사학 3곳 중 2곳이 기독교 학교라는 의미로, 한국 기독교학교가 공교육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개회예배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설교,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고명진 목사는 사사기 2장 10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세대 교육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사사기 시대의 타락은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본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참된 교육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넣어주신 씨앗을 찾아주고, 계발하게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돋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 교회)는 "오늘의 교실이 내일의 세상"이라며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한국 기독교학교 140주년이자, 평준화 교육 50년 가량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평준화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평준화 2.0'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며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참된 교사, 그리고 하나님에 부르신 기독교학교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서울신대 이사장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는 환영사를 전했으며, 송기한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한 축사를 전한 조정훈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기조 강연에 앞서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교육 약자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첫 기조강연을 전한 임태희 경기도 교

육감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제시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핵심 목표를 "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을 개방해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공유학교' 모델 운영, 언제 어디서든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교' 기반 확립,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꼽았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전 고려대 총장)은 'AI 시대 한국교

술 환경 속에서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AI 기술은 이미 인간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21세기를 살면서도 여전히 20세기 교육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염 총장은 "20세기의 교육은 인간을 산업 체계의 부품처럼 다뤘지만, 이제는 다시 '인간' 중심의 전인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답을 잘 맞히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만들어내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이 있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최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기독교 교육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호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의 축사에 이어, 중앙기독학교 학생들의 공연, 헤리티지와 협연, 전제 합창 등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등 대표 6인이 무대에 올라 비전선포를 선언했다. 골자는 ▲교육 선택권 보장▲교육의 다양성 실현▲교육의 자율성 회복▲교육의 공공성 향상 등이다.

끝으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은호 목사(오윤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재확인했으며,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중앙학원 이사장)는 폐회 인사를 전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백선영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전 세계 1,400만 명 어린이 대상 CPC 전도 목표 발표

12월 한 달간 32만 전도자 훈련 완료… 각국 현장에서 복음 전파 활동 진행

◆1,400만 대상 글로벌 복음 전도 확대
어린이전도협회는 올해 12월 크리스마스파티클럽(Christmas Party Club, CPC)을 통해 전 세계 1,400만 명의 어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총 1만 7,000회의 강습회를 진행해 약 32만 명의 전도자를 훈련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약속된 장소에서 CPC 전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역의 핵심이 단순한 연말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오셨다"는 메시지를 직접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현장에서는 기도와 준비를 지속하며, 복음을 들은 어린이들이 삶에서 신앙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돋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도 제한 국가에서 이어진 기도와 헌신 협회는 전도가 제한된 한 국가에서 진행된 CPC 사례를 소개하며, 사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들은 식물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파티클럽을 기대하며 모였으나, 현장은 경찰들로 가득 차 있어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사역팀은 이미 도착한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고, 결국 경찰이 입장장을 허용하면서 행사 진행이 가능해졌다.

내부의 긴장감은 지속됐으며,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에도 추가 경찰이 도착했다. 사역팀은 가방 속에 현수막을 숨기고 조용히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음을 전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사역팀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그 결과 참석



어린이전도협회 사역 현장의 모습. ©어린이전도협회

한 어린이 28명 중 21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사례가 크리스천의 기도와 용기가 매우 중요한 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니 지역 중심의 교사 훈련 확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강갑중 선교사는 2025년도 CPC 전도를 위해 섬 지역을 순회하며 46일간 교사 훈련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979명이 훈련

을 완료했으며, 1,003건의 CPC 전도 사역 참여가 약속됐다. 이미 12월 1일부터 산골 마을 곳곳에서 전도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약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는 별리 지역만의 목표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CPC 전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 요청

어린이전도협회는 CPC 전도를 통해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구원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며,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며, CPC 전도를 통해 예수의 탄생 의미를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제13회 다세움 MMB 캠프, 강원 철원 김화수양관에서 개최

군선교 청년 리더십 양성 목표
M비전선교사 훈련 집중

제13회 다세움 MMB 캠프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 철원군 내수동 교회 김화수양관에서 열린다. 다세움비전선교회(대표 한아람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군선교 현장에서 MMB(Military-Missionary-Bridge) 청년 리더십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캠프는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 예배하라! 선교하라!(딤후 2:15)'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아람 목사를 비롯해 군종목사와 선교사 등 여러 강사가 참여한다. 친양에는 노아대네임, 테바워십, 민호기 목사 등이 함께한다.

다세움비전선교회는 캠프를 통해 군부대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M비전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장병들과 생활하며 예배 공동체 리더와 영적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세움 MMB 캠프는 일회성 훈련이 아닌 현장 중심 선교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캠프 이후에도 멘토링과 영성훈련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군대에서 변화된 청년들이 사회로 파송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돋고, 군선교와 다음 세대 복음운동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대한예수교 독립교회 연합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시온교회 3층 본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5길 7)

참석대상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
(혹은 위임장을 가진분) 및 직능대표



1부 예배

2부 회의

안건: 1. 회원 명부 및 개회선언
2. 현황보고 및 규칙개정
3. 임원 선출 및 목사안수식 및 장로, 권사 임직식 준비위원회 구성, 총회신학원 설립 연구위원회 조직.
4. 사업계획보고 및 승인
5. 기타안건 처리 및 폐회후 잔여안건에 대한 위임

3부

1.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전자기부금 발급에 관한 설명
2. 성경통독실사례 발표 (새동산교회 하명혜목사)
3. 회원소개 및 친교 (연합회 로고 표지판 배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5길 7 2층 202호

전화 053-631-0191, 팩스 053-633-0636



이사장 김정동 목사

대한예수교독립교회연합회

대한예수교독립교회연합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돋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교회의 독립적 운영과 사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각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 연합회 성격 및 법적 지위

대한예수교독립교회연합회는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비영리 종교법인)입니다. 소속교회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각 교회는 법적 행정적 사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I. 연합회의 운영 원칙

목회자가 중단 없이 사역하도록 정년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남여 목회자, 소규모의 작은교회와 가정교회 등 사역환경이 열악한 교회 모두 동등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는 비간섭 원칙으로 자체 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北에 강력히 석방 촉구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요청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에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긴급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언론회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은 선교사이고, 탈북민이었다”고 강조하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

스 기자가 ‘북한에 10여 명의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이 재명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언론회는 이를 두고

도 언급했다. 언론회는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김국기 씨를 포함한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거의 10년간 억류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 한다”고 밝힌 사실을 인용하면서, 유엔이 “이들은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 외부와 단절된 무기한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

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U 역시 지난해 4월 제55차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남북자·여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소개하며, “EU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언론회는 특히 북한이 선교사들에게

간첩죄·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불법 구금하고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해왔다면, 대표 사례로 김국기 목사를 언급했다. 이들은 “그는 2003년부터 중국 단

동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불법으로 체포되어 고초를 당하고 있다”며 “지금은 생사조차 알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찌 보수정권들만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영 기자

남북 피해 가족회,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끝까지 송환 노력해야”

북한 억류 국민 문제에 비통함 표하며 전담부서 신설 등 요구 사항 제시

6·25전쟁남북인사가족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가족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마지막 한 명의 억류 국민까지 반드시 송환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보인 어리둥절한 반

응은 유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억류 문제의 뿌리가 6·25전쟁 당시 발생한 강제 남북 사건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회는 당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강제로 남북된 바 있으며, 현재 억류 문제도 이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첫째, 대통령 직속 남북자·여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둘째, 남북자와 억류자 송환 없이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대통령과 외교부·통일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

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가 공무원의 ‘세송이물망초’ 배지 착용을 요구했다. 이 배지는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제작된 상징물로, 남북자·여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하며, 매우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알려지지 않은 억류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시점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김정숙·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인 등 총 6명의 우리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억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장기 억류자인 김정숙 선교사는 2013년 평양에서 체포된 이후 10년 이

상 억류 상태에 있다.

가족회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억류 피해자 송환 문제를 다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와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12월 9일 오후 3시 새문안교회서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의 날’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 협의회(이사장 정성길 장로, 이하 한정협)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980년 대성공사 신우회로부터 시작한 한정협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한 동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온 구호로 공식 창립했다. 이후 탈북민 선교, 청소년 교육지원, 교정선교, 조찬기도회,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이사장인 정성길 장로는 “한정협이 지난 45년 넘게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재정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라며 “지금까지도 움을 주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정협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정협 지도목사인 박원정 목사는 “우리는 일반적인 탈북민 지원단체와 달리, 종교단체로서 신앙과 공동체 기반의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북한을 털출해 육신의 자유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움을 주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정협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정협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및 하나님 내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며 정착지 인근 교회와 탈북민 가정의 자매 결연을 통해 신앙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탈북민 사역자들을 적극 양성해 통일시대 대대적인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정협은 정기적으로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한 영성수련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북한 복음화를 이끌어갈 목회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나님 교육생을 위한 도시 문화 생활 체험·취업학업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김진영 기자

함께하는사랑밭, ‘문제없는영화제’ 개최 시민이 만든 11편의 수상작 공개

기독 NGO 함께하는사랑밭(대표 정유진)이 주최한 2025 ‘문제없는영화제’(No Problem Film Festival-NPFF)가 최근 영등포 CGV에서 열렸다. 행사 진행은 아나운서 김정근이 맡았으며, 1부 초청작 상영과 2부 수상작 상영 및 시상식으로 구성됐다. 영화제는 세대, 지역, 성별과 관계 없이 시민 공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일상 속 사회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상영됐다.

NPFF는 지난 7월부터 시민 공모를 진행해 총 248편의 출품작을 접수했다. 심사는 안재훈 감독이 대표를 맡았고, 총괄 책임자는 배우 권오중이 맡아 심사 과정을 이끌었다. 최종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함께하는사랑밭 측은 이번 영화제가 “이름과 달리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를 직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영화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 인사에서 권오중 배우는 “함께하는사랑밭이 지난 38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며 기록해온 현장 이야기를 영화라는 언어로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소개되는 작품들은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사랑밭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나누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초청작 ‘엄마는 흐른다’가 상영됐다. 작품은 생일파티에 참석한 주인공 ‘지우’가 활동 지원사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며 우연히 만난 ‘아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누군가에게 이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아, 우리가 걷고 오르내리는 일상의 길과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돌아보게 한다.

강은정 감독은 “장애나 인권 이슈를 강조하기보다 두 인물의 관계와 개성을 영화 속에 담고 싶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감독은 과거 진행한 미디어 수업 과정에서 영화 제작 실습이 계기가 되어

어 이번 작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본선 상영과 심사위원총평 후 단편 및 속편 부문 시상식이 이어졌다. 단편 부문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 원, 속편 부문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속편 수상작은 김다인의 ‘비행’, 오은민의 ‘연기 인연 연, 일어날 기’, 이운영의 ‘킬리들의 수다’, 정재훈의 ‘남매의 수레’, 황준호의 ‘최고의 선물’ 등 5편이다. 대상작은 정재훈 시민창작자의 ‘남매의 수레’가 선정됐으며, 짧은 라宁县에서도 빈곤과 노동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편 부문 수상작은 진가빈의 ‘무국’, 최아리의 ‘어른아이’, 윤세희의 ‘햄스터 이야기’, 이재린의 ‘행복한 가정’, 김진영의 ‘이상한 나라의 미자’, 전현지의 ‘그 많던 케이크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총 6편이다. 단편 부문 대상작은 ‘무국’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의료 접근의 한계로 위기를 겪는 엄마와 아이의 하루를 밀도 있게 담아 사회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현실을 깊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연 기자

한장총, 장로교 140주년 미래포럼 갖고 새 출발 다짐

“장로교 정체성 살리고 성령운동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 일으켜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최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 장로교 선교 140주년 미래포럼’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장총 증경대표회장들과 종회장 및 종무·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장총이 교단간의 연합으로 장로교 정체성을 살리면서 성령운동을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다음세대를 위해 더욱 앞장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에선 신용현 목사(개혁개신 종회장)의 사회로 권오삼 목사(보수 종회장)가 기도했고, 엄신형 목사(한장총 제24대 대표회장)가 설교와 축도를 했으며,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증경대표회장으로 발표에 나선 엄신형 목사는 “성령의 하나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준비된 신부로서 신령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며 전했다.

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의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별히 한장총 증경대표회장님들과 종회장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한국 장로교 선교 140주년 미래포럼’에선 대표회장이 사회를 맡아 천한 목사(한장총 제41대 대표회장)가 기도했고, 증경대표회장들과 종회장들이 한장총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포럼은 조세영 목사(한장총 종무)의 광고와 송태섭 목사(한장총 제36대 대표회장)의 마무리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증경대표회장으로 발표에 나선 엄신형 목사는 “성령의 하나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준비된 신부로서 신령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며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장총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장총

서 “성령충만한 분이 대표회장이 되셨으니까 잘 할 줄 믿고 나부터 앞장서서 성령운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한 목사는 “연합단체의 필요성을 갈수록 절감하고 있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연합하여 진리 앞에 서야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한장총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태섭 목사는 “한장총은 연합기관으로서 제일 먼저 세워진 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로교 정체성을 세우면서,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대표회장을 필두로 교단과 교회들이 협력해서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회장을 대표해 발표한 예장 개혁신 신용현 종회장은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모인 한장총

이기에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 5대 솔라의 동질성이 있다”면서 “목사가 끊기워야 성도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들이 이 되자”고 전했다.

한편 한장총은 포럼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제43·1차 임원회를 갖고 제43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채택하는 한편 정기총

회에서 위임된 제43회기 주요 사업들을 다시 한번 발표하면서 회원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장총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은퇴(원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며, 신년하례회는 내년 1월 9일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드리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동경성시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500회 기념집회 열려

2003년 1월 23일 1회 조찬기도회 후 지금까지 격주로 기도회 개최

동경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정순엽 목사·오영석 장로) 조찬기도회 500회 기념집회가 최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담임 구자우 목사)에서 열렸다.

김근식 목사(동경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선 성시화운동 회원들의 ‘성시화운동 선언문’ 제작에 이어 정순엽 목사(공동회장)이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정 목사는 “2003년 1월 시작된 성시화운동의 간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성도들을 다시 세워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쓸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성시화운동 목사 회원들의 특별찬양에 이어 한별 목사(서울대치동순복음교회)가 로마서 8장 17절 본문, “상속자에겐 상속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상속자는 상속권이 있다”며 “그런데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통해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며 “그런데 왜 내 삶에 피부로 닿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실상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실상 전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땅에 있는 모든 영호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안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 심령이 마치 자동차끼리 충돌하며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를 말한다”며 “그런데 이 찌그러진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구부러진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도전했다.

이어 박영길 목사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와 주진안 장로(한국CBMC일본연합회장)가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김철영 목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아브라함, 모세, 벌립 집사, 사도 바울 등 한 사람을 들어쓰신 예가 많다. 물론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다.

그리면서 “성시화운동은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민족복음화운동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민족복음화 이전에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며 추진했다. 이제는 한국의 도시와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2003년 1월 23일 오영석 장로님의 헌신으로 동경성시화운동 훌리클럽 조찬기도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사역이 이어오고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동경 땅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어 한국과 일본교회가 연합하여 복음화율 0.25퍼센트의 일본 선교의 벽을 뛰어넘는 거대한 영적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안 장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 싸워 오면서 500회 조찬기도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일본 CBMC는 4개 지회가 있다. 성시화운동의 열정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장구하게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성시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500회 기념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목사 별세… 향년 71세

경기도 안양의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를 개척한 박중식 원로목사(사진)가 4일 저녁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4년생인 박 목사는 1983년 상가에서 새중앙교회를 직접 개척했다. 이후 말

씀과 제자훈련, 국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펼쳐 왔으며, 새중앙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7년 1월 이 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박 목사는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목회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새중앙교회는 원로목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가 이룬 목회 사역과 선교 정신을 추모했다.

고인의 입관예배는 6일 오후 4시, 위로예배는 7일 오후 2시, 발인예배는 8일 오전 9시에 각각 거행된다.

천국환송예배는 8일 오전 10시 새중앙교회 대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한기총 김정환 전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사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으나 최근 각하됐다.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지난 9월 29일 제36·6차 임원회에서 김 목사를 사무총장직에서 면직시켰다.

이에 김 목사는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담긴 판정서는 30일 이내 양측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겨울엔 발이 얼 정도였는데… ‘고향교회’에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



고향교회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구암교회 서장범 목사(가운데)가 최근 열린 미래목회 포럼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상을 받았다. ©기독일보 DB

구암교회 서장범 목사, 미래목회포럼 수기공모전 수상

강원도 춘천 동산면에 위치한 구암성 결교회 서장범 목사가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황덕형 목사)이 주관한 ‘고향교회 방문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부임 당시 구암교회는 5명의 노인 성도와 낡은 예배당만 남아 있었고 추운 겨울엔 예배 중 발이 얼어 눈물이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방식으로 교회를 일으키셨다. 고향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섬김이 이어지며 교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서울의 집사들이 공사와 헌신을 자원했고, 이 지역 출신 성도들은 부엌창틀 등 교회 시설을 무상으로 수리했다. 명절마다 자녀들의 찬조와 섬김도 이어졌다.

이러한 사랑의 연결은 교회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변화시켰다고 서 목사는 고백했다.

현재 구암교회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인근 대안학교 학생들까지 35명가량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서 목사는 “고향교회는 세대를 잇는 신앙의 품”이라며 “농어촌 교회를 향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같다. 자녀들은 떠나도 마음은 그곳을 향한다. 작은 시골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고향교회를 돌아볼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도 교회와 성도, 지역사회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김동적인 사례”라며 “고향교회 살리기 운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CGN, AGST-Pacific와 온라인 신학교육 협력 MOU 체결

한인 선교사·목회자 위한 신학 교육 콘텐츠 확충…

기독 OTT ‘퐁당’ 기반 공동 사역 추진

CGN(이사장 이재훈)이 최근 AGST-Pacific 신학교(이사장 박형용 박사, 총장 임경철 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신학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인 선교사와 목회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신학교육 시스템 구축에 단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에는 구약·신약·조작·역사·실천·선교학 등 주요 분야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지원이 포함된다.

CGN은 이번 협약을 통해 AGST-

Pacific 교수 및 재학생이 기독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미디어 기반의 선교 사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GST-Pacific 역시 ‘퐁당’을 활용해 강의 콘텐츠 확산과 홍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한인 선교사와 목회자, 지도자들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훈 CGN 이사장은 “선교지에서 가



CGN-AGST-Pacific 온라인 신학교육 협력 MOU 체결 기념 사진. ©CGN

장 중요한 이슈는 지도자 양성이다. 현장 중심의 또 네트워크 중심의 귀한 사역이 AGST-Pacific 신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CGN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며 “CGN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해해주는 그런 방송으로서, 이번 협약이 함께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경철 AGST-Pacific 총장은 “한인 선교사들이나 (선교) 현지의 지도자들, 더 넓게 보면 한국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들을 위한 사이버대학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번에 CGN과 ‘퐁당’을 통한 온라인 신학교 교육 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며 “CGN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목회자, 교회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GST-Pacific은 ATA(아시아신학연맹) 인기를 받은 대학원 과정 신학교로, 2014년 설립 이후 한국 내 14개 신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세부, 태국, 몽골, 중국, 네덜란드, 레바논,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서 사역 중인 약 145명의 선교사가 재학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영락교회 80주년

찬양예배에 예람워십 동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드린 감사 찬양예배가 약 3천여 명의 성도와 외부 참여자들로 가득 차며 큰 감동을 전했다. 본당뿐 아니라 부속 예배실과 보조 의자까지 모두 개방해야 할 정도로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예배에는 CCM 차트 1위, 유튜브 조회수 1천만 회를 돌파하며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찬양사역팀 ‘예람워십’이 함께했다. 특히 예람워십은 영락교회 80주년을 기념해 설립된 경남 양산 사송 영락교회(전현 목사)에서 사역 중인 찬양팀으로, 모교와 새로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한 장면은 신앙의 계승과 다음세대 부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순간으로 평가된다.

영락교회는 이번 예배를 위해 전례 없는 변화를 시도했다. 본당 강대상 위에 드럼키보드 등 밴드 악기를 설치하고 장의자를 이동해 무대를 넓히는 등, 전통 교회의 틀을 넘어 젊은 세대 중심의 예배 형식을 도입했다. 이는 ‘80주년 이

후의 영락교회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시도였다.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영락교회를 조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생각해온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젊은 세대와 함께 역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며 “80년 역사 속에서 처음

시도한 형식인 만큼, 다음세대를 향한 변화의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는 “경건하고 차분한 교회의 이미지만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며 “청년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가 더 젊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을 기점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찬양예배는 그 첫걸음으로 예배 형식을 도입했다. 이는 ‘80주년 이

영락교회 찬양예배 현장의 모습. ©예람워십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간기장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김정대 원로목사, 나사렛대학교에 장학금 1억 원 기부

나사렛대학교는 대전반석교회 김정대(82) 원로목사가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통해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목사는 평생 사회적 악자와 이웃을 섬겨 온 신앙의 철학을 나눔으로 실천해 왔으며, 이번 기부 역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의 뜻이 담겼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기꺼이 헌신했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나사렛학원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기탁된 장학금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베풀 줄 아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70년 나사렛신학교를 졸업한 김 목사는 스재단법인 나사렛유지재단 제10·13대 이사장,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아세아태평양 나사렛신대학교(APNTS) 이사△전국총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교단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노형구 기자



나사렛대학교는 대전반석교회 김정대(82) 원로목사(맨 왼쪽)가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통해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나사렛대

여의도순복음교회, 한부모가정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행복한대한민국 및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최근 베니나홀에서 (재)행복한대한민국(박윤옥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배성희 협회장)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와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23년부터 지속해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 20가족과 시설 종사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행복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가운데) 등 업무협약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가족, 따뜻한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재)행복한대한민국 박윤옥 이사장은 “이번 겨울나기 행사가 여러분에게 행복

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힘이 되고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배성희 협회장은 “교회가 한부모 가족들을 초청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한 것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훈자가 아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며 큰 위로가 되었고, 엄마들뿐 아니라 이기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감사하다”며, “아이에게도 오래 기억될 소중한 하루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미국, 반기독교 폭력 연루 나이지리아인 비자 제한 조치 발표

기독교인 대상 대규모 공격 지속 속, 종교 자유 침해 관련자 및 가족까지 비자 제한

트럼프 행정부, 나이지리아 정부에 즉각적 조치 촉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국무부가 최근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대상의 친혹한 살해와 폭력 사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나이지리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무장 극단주의 단체와 민병대가 수년째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벌여 온 살상, 납치, 예배당 파괴 등이 국제사회 우려를 야기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비자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3)(C) 조항에 근거하며,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 침해를 지

시하거나 승인, 지원, 참여, 실행한 개인과, 필요할 경우 그 직계 가족에게도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특정 외국인이 미국 내 체류 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친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알면서도 지시하거나 승인자금 지원·참여·집행한 개인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조치는 특정 정부를 넘어 종교 자유 억압에 관여한

모든 정부·단체·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기 위해 “군사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어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폭력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달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셋(Pete Hegseth)은 나이지리아 국가안보보좌관 누후 리바두(Nuhu Ribadu)와 회담을 갖고,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폭력 중단을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헤셋 장관은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주는 테러 단체들에 대응하기



테니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위해 나이지리아와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한적 고강도 공습만으로는 나이지리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폭

력 사태가 종교적 갈등이 아닌 수십 년간 이어진 농민·목축업자 간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중부 벨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혹 행위가 종교 박해 혹은 집단학살(genocide)에 해당한다는 평가에 대해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급진화된 조직과 민병대의 폭력을 제때 막지 못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폭력 사태로 인해 수백만 명이 이동(displacement)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CP는 나이지리아 내 박해 문제는 국제 사회 뿐 아니라 대중문화계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래퍼 니키 미나즈(Nicki Minaj)는 최근 X(트위터)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한다고 밝히며, “어떤 집단도 자

신의 종교를 실천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아사는 안 된다”고 게시했다. 이어 “전 세계 곳곳이 이런 비극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의견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도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올해 발표한 ‘2025 월드 워치 리스트(WWL)’에서 나이지리아를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극심한 7위 국가로 선정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최소 3,100명이 살해되고 2,830명이 납치된 것으로 추산됐다. 성적 폭력 및 신체·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피해는 각각 약 1,000건, 1만 건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어떤 외교적 파장과 실질적 효과를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마리카낭에서 열리는 대규모 새해 행사, 브라질 침례교회의 새로운 시도

리우의 상징적 경기장에서

5만 명 규모의

기독교적 연말 기도회 개최 예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com

참여하며, 교회 담임목사 조수에 발란드루 주니어(Josué Valandro Jr.)가 전체 프로그램을 이끈다.

아티투지 침례교회 측은 이번 행사는 목적을 ‘가정 중심의 연말 문화, 교회 공동체 안의 교제,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 고백에 기반한 새해맞이 분위기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새해 축제 분위기를 대체할 신앙 중심의 연말 행사는 점에서 교인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DI는 이 같은 대형 복음주의 행사에는 이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Allianz Parque)에서 라고인하 침례교회(Lagoinha Baptist Church)가 ‘비라 브라질(Vira Brasil)’을 개최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행사는 브라질 주요 방송사 SBT에서 생중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복음주의계 연말 행사 중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비라 브라질’은 약 15팀의 가수·밴드, 설교자가 참여하며 음악과 메시지

를 결합한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아나 노브레가(Ana Nóbrega), 이사이아스 사드(Isaías Saad), 엘리 소아레스(Eli Soares), 페르난지뉴(Fernandinho), 반다 모라다(Banda Morada) 등 다양한 아티

스트는 물론, 안드레 페르난지스(André Fernandes)와 케자이아 카디모(Quézia Cádimo) 등 목회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CDI는 올해 마리카낭에서 열릴 ‘마리

비라 리우 2025-26’은 이러한 흐름 속에 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브라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신앙과 예배, 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새해 축제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필리핀 전역 뒤흔든 ‘Jesus Reigns’ 축제, 수천 명의 신앙 고백 울려 퍼졌다

14년째 이어진 전국적 예배 행사…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며 비정치적 신앙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



필리핀 전역 뒤흔든 ‘Jesus Reigns’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Jesus Reigns Celebration – Cebu Facebook post

를 구하는 신앙운동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CDI는 필리핀 전국 곳곳에서 예배를 인도한 이들과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SNS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함께한다. 필리핀 모든 지방 위에, 오직 예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남겼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상징적 행동으로 “Jesus Reigns”라는 고백을 일곱 번 반복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음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들 희망의 이름은 분명하다.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적으며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도 필리핀 곳곳에서 울려 퍼진 이 신앙의 고백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연합의 메시지를 남긴 채 다음 해를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최승연 기자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이번 행사를 주관한 ‘Jesus Reigns Philippine Celebration(JRPC)’은 2012년 출범한 비교적 신앙운동이다. 특정 교단이나 인물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돼 지금까지 필리핀 전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 왔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예배와 기도, 지역사회 섬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신앙 공동체 형식을 지향해 왔다.

2025년 행사는 “Living Sacrifice(살아 있는 제물)”였다. 조직위는 올해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헌신하며, 이 방향성이 내년 행사 기조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각 지방에서는 성경 구절이 적힌 차량들이 퍼레이드를 벌였고, 지역별로 동일 시간대에 맞춰 예배와 찬양이 진행됐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찬양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복잡하게 얹힌 시기임에도, 조직위원회는 행사 본연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성명에서 “우리 행사는 2012년 시작 이래 어떤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며 비정치성을 강조했다.

JRPC는 또한 자신들의 핵심 가치가 P.A.U.S.E.라는 약어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도(Prayer), ▲의병성(Anonymity), ▲연합(Unity), ▲희생적 나눔(Sacrificial-giving), ▲탁월한 예배(Excellence in worship)를 뜻한다. 조직위는 이 가치가 2억대기 7장 14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언급하며, 겸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나라의 치유

미국장로교한인총회 전국 한인청년 연합수련회 개최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청년 될 것 다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 제자 양성의 일환으로 제4회 미국장로교 한인총회(NCKPO) 전국 한인청년 연합수련회(두드림 2025, 준비위원장 노재왕 목사)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한미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인 지난 11월 27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예수님을 통한 헌신 발견을 대주제로, '행함(마태복음 7:21)'을 소주제로 열렸다.

개회예배에 등단한 주강사 노승환 목사(뉴저지 친양교회)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보다 강하고, 우리의 죄보다 강하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은 온갖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은혜의 밤을 통해 노승환 목사는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를 주제로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이기에 예배의 회복과 경건에 힘써야 한다"고 도전했다.

'나도 내 짹을 찾으리라'를 주제로 세미나 강사로 나선 호산나 전도사(ANC 온누리교회)는 "결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청년의 때에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듯은 베풀로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을 주제로 세미나에 등단한 김대주 목사(삼페인-아바나한인교회)는 "기도는 권리이자 책임이며,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것을 꿈꾸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복해야 할 산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신의 밤을 통해 노승환 목사는 '수단과 목적을 주제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수련회는 조별 미션과 주제별 세미나를 비롯하여, 은혜의 밤, 헌신의 밤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주최 측 제공



두드림 2025 전체 참가자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헌신을 위한 희생 뒤에는 아픔과 기쁨이 라는 두 가지 감정이 수반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헌신을 주님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젊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자"고 도전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황유진 청년(삼페인-아바나한인교회)은 "은혜 받은 빛진 자의 자세로 작은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위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비전을 품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교회에서만 반짝이는 신양인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써 매일을 거듭나야겠다"고 했다.

노재왕 목사(두드림 2025 준비위원장)는 "세상에 훨씬 뛰어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청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

라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면서, "학업과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속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간 미국장로교(PCUSA)에 속한 한인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는 매년

김민선 기자

광복 80주년 기념 '나래 2025' 베나로야흘 감동으로 물들여



행사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공연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광복 80주년, 625 한국전쟁 75주년, 미주 한인이민 122주년을 맞아 열린 '나래 2025'가 지난 11월 30일 시애틀 베나로야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통과 창작, 국악과 합창, 세대를 잇는 다양한 무대로 구성된 이번 '나래 2025'는 한인 이민 역사의 감동을 되새기며, 수준 높은 한국 문화예술을 통해 한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는 세대를 넘어 간직해야 할 한인 이민 역사와 유산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했다.

비상(飛上)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나래 2025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수진 종교대회장과 김원준 광역시회장을 비롯한 한인회장(총괄준비위원장), 김성훈 위성

던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후원위원장)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애틀 한인사회가 함께 비상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베나로야흘 2,500석을 가득 채운 공연에서,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샷별한국문화원 최지연 원장과 샷별예술단 최시내 단장은 한국 전통예술의 깊이를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쳐 보였다. 웅장한 북소리로 창조의 순간을 표현한 샷별예술단의 '태조'를 시작으로, 한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담은 역동적인 춤사위가 이어지며 공연장을 빠르게 몰입의 분위기로 채워졌다.

이어진 진도북춤과 금수강산, 산, 비의

선율과 안무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또한 가수 김지현씨가 부른 '한오백년과 '아리랑'은 깊은 정한을 담아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도 돋보였다. 최시내 단장(가야금), 최우리 목사(바이올린), 앤토니 김(첼로), 스티븐 리(키보드)가 함께한 '퓨전 판타지'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가 하나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넬라 판타지아'와 찬송가 '주 하나님'이 모인 세계(How Great Thou Art)가 이어질 때는 관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며 큰 환호를 보냈다.

특히 미국 전문 합창단 Choral Arts

Northwest는 ▲새야 새야 한국어로 열창하며 또 다른 감동을 더했다. 외국인 합창단이 완성도 높은 발음과 조화로운 하모니로 한국적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하자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음악을 통한 한미 문화교류의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 드러냈다.

공연 후반에는 샷별예술단이 학의 우아한 날갯짓을 형상화한 학춤과 전통 장단이 살아 숨쉬는 사물놀이를 선보이며 한국 문화예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추수와 축제의 흥을 가득 담은 '한마당'이 펼쳐져 공연장은 하나 된 감동과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김민선 기자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Lawrenceville Symphony Orchestra, LSO, 음악 감독 박평강)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국인이 이끄는 단체로서 미국 주류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 및 K-컬쳐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인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음악 감독 박평강의 지휘 아래, LSO는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은 2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풍성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는 헨델의 오라 무대를 선사했다.

토리오 메시아의 주요 곡들을 선사했다. 지휘자 박평강이 이끄는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과 함께 소프라노 디애나 피터슨 (Deanna Peterson), 소프라노 이은경, 테너 세스 피터슨 (Seth Peterson), 그리고 하프시코드 김양선이 출연하여 호흡을 맞췄다. 2부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곡들과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했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기고 있다.

2025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 찬양제 개최

2025 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최현규 목사, 부회장 홍충수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 찬양제가 12월 7일(주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에서 개최됐다.

글로벌선교교회, 나성한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정지기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 Church가 참여하며, 장로선교 중간단이 찬조 출연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밤볼, 일상 통화로 치매 선별하는 ‘기억탐정’ 출시… 교회 등 보급 기대”

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한경협회장상 수상
“국내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확장도 본격 추진”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밤볼(Bambol, 대표 김광훈)’이 지난 3일 ‘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한경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밤볼은 이날 사용자가 가족, 친인 등과의 일상통화만으로도 인지 저하 가능성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치매 선별검사 서비스인 ‘기억탐정(Memory Detective)’도 정식 출시했다. 이 신제품과 기술은 특히 정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주관한 연계 행사인 ‘2025 서울국제발명전시회(SIIF 2025)’에서 공개됐다. SIIF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Hall C에서 열렸다.

김광훈 밤볼 대표(영락교회 집사)는 3일 전시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에는 어플 설치만 하면 치매경도인지를 선별 분석하여 알려주는 ‘기억탐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 기관과도 협력하여 어플을 적극 보급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치매 및 인지증신경, 심혈관 질환, 폐질환 등 한국 3대 주요 질환의 조기 개입 지역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30조 원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는 6조 달러(약 8,8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질환의 조기 개입이 늦는 만큼 생산성 손실, 간병비, 사회적 부담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조기 개입 시에는 3대 주요 질환의 관리 비용을 25~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밤볼은 올해 7월부터 스마트폰 화면에



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한경협회장상 수상자들이 한국발명진흥회장(중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김광훈 밤볼 대표 ©밤볼



김광훈 대표가 기억탐정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발명전시회 밤볼 부스 ©이지희 기자

제시된 문장을 읽으면, 발화의 음향, 언어적 특징을 AI로 통합 분석하여 치매경도 인지를 선별하는 ‘문장 낭독 기반 자가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흥제중앙그리스도의교회 헬링예배 및 치매증증예방운동교실 등에서는 이 무료 버전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극 보급해 왔다. 김 대표는 “자아를 잊어버리는 병인 치매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근육도 영향을 받는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근육 중 하나가 성대”라며 “치매 극초반에 우리는 모르지만, AI가 음향적으로 종합 분

석해 띄어쓰기나 단어 선택 등에서 정상인과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치매 극초반에 조기 개입을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치료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식별해 치매경도인지장애를 선별 분석, 검사 결과를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음성 등록 과정은 안내 문구를 읽는 방식으로 10초 이내에 완료될 만큼 간편하다.

이 ‘일상 통화 기반 자동검사’ 기능으로 밤볼은 이번 ‘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한경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기억탐정’의 AI 분석 정확도는 가톨릭대학교의 임상 데이터 기반 사후 분석에서 치매 판별 정확도가 약 85%, 경도인지장애 판별 정확도가 약 83%에 이른다.

밤볼은 관련 연구를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며, 음성 기반 인지선별 기술과 통화 기반 자동검사 기술 모두에 대해 PCT 국제특허를 출원해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광훈 대표는 “일상 통화 기반 자동검사 아이디어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아이디어 때문에 2023년 4월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문과 출신에 경영학 석사를 전공한 김 대표는 대기업, 증권사, 외식기업 등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 AI 관련 사업을 하는 친구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겨 많은 개발자를 만나게 됐다. 김 대표는 “개발자들과 대화하며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다. 그때 ‘AI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구나’ 느꼈다”며 “5년 만에 회사를 나오면서 새롭게 ‘이것

을 안 하고 죽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취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회사를 시작했다. 제 어머니도 치매이셔서 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김 대표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집 안에 마흔이 넘은 사람 치고 집사, 권사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현재 밤볼은 ‘기억탐정’ 외에도 폐렴, 천식, 폐섬유증, 심장증 등의 조기 징후를 감지하는 AI 흉부진진을 분석 솔루션인 ‘오디아(Audia)’를 개발해 상표등록을 했다. 또 영상 기반 뇌질환 진단·예측 기술인 ‘MRI 기반 해마 분석 AI’도 개발했다.

밤볼은 국내 서비스를 넘어 글로벌 확장도 본격 추진 중이다. 태국 콘깬대학(Khon Kaen University), 나이지리아 아로 정신보건병원(Aro Psychiatric Hospital)과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태국어영어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권 퍼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어 버전 보급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기억탐정 서비스에 단체로 가입할 경우 구독료(1년 3만 원)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지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의 사회적 혁신과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풀뿌리 선교’(上)

선교사를 위한 책 한 권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6)

손창남, 〈풀뿌리 선교〉
(조이북스, 2023)



들어가는 말(서론): ‘풀뿌리 선교’는 가장 오래된 선교사의 원조 모델

‘풀뿌리 선교’가 무엇일까? 왜 나무뿌리가 아니고 풀뿌리인가? 많이 모여서 선교를 한다는 뜻인가? 책 제목부터 궁금하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선교운동은 제도권 교회가 이끌어 왔다. 지구촌은 오갈 수 없었던 팬데믹 이후 봇물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단

12:4)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 시대를 맞고 있다.



배안호 선교사

‘풀뿌리 선교’란 용어는 손창남 선교사의 신조어(新造語)이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p. 33).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방동석, 생명의 말씀선, 2010) 책에서 선교는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정체성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것이 곧 ‘풀뿌리 선교사’라는 것이다. 〈제도권 선교의 대안이며, 시의적절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풀뿌리 선교〉(손창남, 조이북스, 2023) 부제(副題)가 명쾌, 상쾌하다. 모든 성도는 맘肺리 선교적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풀뿌리 선교〉는 지금 이 시대의 제도권 교회선교의 성경적 대안이다. 아

울어서 21세기 세계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손창남 선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이선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는 1981년부터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며 학원 복음화에 힘썼다. 1990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 조이(JOY)를 개척하였다. 10년간 사역을 마치고 2001년 한국으로 돌아와 7년간 한국 OMF 대표로 섬겼다. 현재는 OMF 동원 사역과 함께 조이선교회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그는 반추(反芻)하는 실천으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활성하게 하고 있다. 〈족자비안 나이트〉, 〈쏘라비안 나이트〉, e북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 e북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 〈직업과 선교〉, 〈교회와 선교〉(이상 조이북스 펴냄), 〈리더십 빌드업, 프로젝트 티모티〉가 있다. 손창남 선교사의 책들은 쉽고 깊고 명쾌, 상쾌, 유쾌하다.

모두 9개 장으로 되어있다. 제1장은 ‘풀뿌리 선교란 무엇인가’, 제2장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풀뿌리 선교’, 제3장은 ‘고대의

풀뿌리 선교’, 제4장은 ‘근·현대에 등장하는 풀뿌리 선교의 열매’, 제5장은 ‘바이킹 이야기에 등장하는 풀뿌리 선교’, 제6장은 ‘직업선교와 풀뿌리 선교’, 제7장은 ‘풀뿌리 선교의 사역적 전문성’, 제8장은 ‘풀뿌리 선교의 시대적 요청’, 제9장은 ‘풀뿌리 선교의 확산을 위한 전제이다’.

서평자는 풀뿌리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근현대 대세를 등장하는 풀뿌리 선교(4장), 풀뿌리 선교의 시대적 요청(8장) 등을 중심으로 서평 할 것이다.

1. 풀뿌리 선교란? 성경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가?

손 선교사는 그 자신이 ‘풀뿌리 선교’로 일생을 살아왔다. 그가 앞서 출판하였던 그의 책, 〈직업과 선교〉,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에 서도 ‘풀뿌리 선교’를 설명하였다. 풀뿌리 선교 모델은 바나나와 바울처럼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한 ‘바바 선교사’ 모델과 함께, 사도행전 2개의 선교모델로 공존(共存)하고 있었다.

풀뿌리 선교는 교회가 공식 선교사를 파송하기(행 13:1-3) 전부터 존재하였다.

사도행전 8장은 스텔반의 순교로 끝난 피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는 사람들의 풀뿌리 선교 이야기다. 선교(mission)는 타문화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8:5-12)는 이미 풀뿌리 선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 때에 스텔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나”(행 11:19-20, 필자 강조하는 구절이다.)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2,000년 전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놀라운 고백이었다. ‘주(구)리 오스’는 당시의 헬라인들이 믿던 제우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아폴론과 같은 헬라인 신들에게 사용하였던 호칭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유대인

과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고, 당연히 율법과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이 ‘타문화적 인’ 사람들로서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시울(바울)을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하였다. 안디옥교회는 명실공히 선교하는 교회(missional church)로서 소달리티에 속한 역사적 선교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곧 풀뿌리 선교사들이었다.

“이런 선교를 위한 교회의 두 구조를 랄프 윈터 박사는 ‘소달리티(Sodality)와 ‘모달리티(Modality)로 설명합니다. 모달리티는 목양하는 사역구조를 말하고, 소달리티는 모달리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구조를 말합니다.”(pp. 52, 53, 바나바와 바울은 소달리티에 속하였던 자들로서 유대교 안에서부터 소달리티에 속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들을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계속)

배안호 영국 선교사
(Peterahbae@gmail.com)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쁜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상담 02-3295-3300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상준

- 전국 15개 세무서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

세무사 송선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사 송선호

최대 美민간재단 릴리 엔다우먼트, 신학교·종교기관에 8천7백억 지원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인 릴리 엔다우먼트(Lilly Endowment)가 약 1,020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93개 종교기관에 총 6억 4,900만 달러(약 8,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4억 1,600만 달러 이상은 2021년 시작된 '파스웨이즈 포 투모로우(Pathways for Tomorrow)'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캐나다의 45개 신학교에 전달됐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섬길 목회 지도자 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학대학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크리스토퍼 L. 코블 릴리 엔다우먼트 종교부 부회장은 성명에서 "신학대학원은

교회의 목회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학교 간, 그리고 교회·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이야말로 신학교들이 사명을 강화하고 장기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2021년 이후 신학대학원 163곳에 총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그중 61개 학교는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보조금은 250만~1,000만 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가장 높은 1,000만 달러를 받은 학교는 다음과 같다.

오스틴장로교신학교, 바이올리대학교, 베서니신학교, 베슬리시비리신학교, 캠벨대학교, 콘코디아신학교, 이든신학교, 에모리대학교, 풀러신학교, 개럿복음주의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하워드대, 인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애나웨슬리언대, 카이로스대학 내 북미침례신학교, 로고스신학교, 로울라대 시카고, 루터신학교, 마운트에델 수도원, 뉴브런즈윅신학교, 태평양종교대, 팜비치애틀랜티대, 로버츠웨슬리언대, 세인트존스대, 산타클라라대, 사우스이스턴대, 유니언장로교신학교, 웨슬리성경신학교 등이다.

베일러대학교는 약 1,000만 달러 가까운 지원을 받았으며, 코버넌트신학교, 프레즈노퍼시피대, 그랜드캐년대, 노스웨스트칼리지&신학교, 노스웨스트나자린대, 트리니티앵글리칸신학교, 밴쿠버신학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 금액인 250만 달러 지원은 아

틀란틱신학교(Astlantic School of Theology)가 받았다.

릴리 엔다우먼트는 또 기독교 신앙과 삶의 이야기 공유를 목적으로 한 '국가 스토리텔링 이니셔티브(National Storytelling Initiative)'를 통해 48개 기관에 2억 3,2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며 사랑·봉사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제작·공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코블 부회장은 "미디어는 종교 소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공동체에서 신앙이 희망과 의미를 주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강력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생명력을 더 널리 조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토리텔링 이니셔티브는 2024년 12월 처음 시작되어 12개 기관에 초기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릴리 엔다우먼트는 모기업인 제약사 일리아 릴리(Eli Lilly and Company) 주식 9,2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주 미국 제약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24년 릴리 엔다우먼트는 계이초 재단을 제치고 미국 최대 민간재단으로 올라섰다.

재단은 1837년 JK. 릴리 시니어와 그의 아들 일리아, JK. 주니어가 설립했으며, 종교교육·자선 목적 지원을 핵심 사명으로 삼아왔다. 재단은 설립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인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바란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영국민 "성탄절, 너무 상업적"... 전통으로 회귀 원하는 응답 다수

영국 국민 다수가 성탄절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고 느끼며, 어린 시절의 전통적 성탄 문화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동 복지 단체인 '더 칠드런스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가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성탄절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 57%는 "어린 시절 즐기던 전통이 그립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크리스팅글(Christingle) 예배와 같은 전통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



©Unsplash

다.

크리스팅글은 오렌지 위에 촛불을 꽂고, 빨간 리본과 네 개의 막대에 사랑을 끼운 형태로, 단순해 보이지만 기독교적 상징이 풍부한 의식물이다. 오렌지는 '세상을, 빨간 리본은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의미한다. 촛불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

스도와 희망을 상징하며, 네 개의 막대는 땅의 사방을 나타낸다. 사랑은 하나님 이 베푸신 창조의 선물을 의미한다. 크리스팅글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리스도의 빛"을 뜻한다.

마크 러셀(Mark Russell) 더 칠드런스 소사이어티 대표는 "많은 가정이 성탄절이 지나치게 분주하고 상업적이 되었다

고 느끼고 있다"며 "크리스팅글은 속도를

늦추고, 본질과 다시 연결되며,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크리스팅글의 기원은 18세기 모라비안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촛불과 리본만 사용됐다. 현재의 형태는 1968년, 더 칠드런스 소사이어티 소속이던 존 펜

솜이 오렌지와 사탕을 추가하면서 자리 잡았다.

더 칠드런스 소사이어티는 올해 영국 전역에서 2,000여 건의 크리스팅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들은 전통을 기념하는 동시에 외로움, 학대, 정신건강 문제에 놓여 있는 아동을 돋기 위한 기금 마련도 겸한다.

러셀 대표는 "크리스팅글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외롭고 암울되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들을 돋는 데 쓰인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미군 내 종교적 신념 증가 "세속화되는 사회와 대조적"

미국 사회 전반이 세속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역 미군 사이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종교 활동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존 C. 댄포스 센터의 실무 교수 라이언 버지(Ryan Burge)는 자신의 서브스택 'Graphs About Religion'에 최근 글을 게시했다. 그는 'Cooperative Election Stud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2010~2012년 사이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군인은 21%였으나, 2022~2024년에는 28%로 상승했다. 주 1회 이상 예배 참석 비율을 합산하면 2022~2024년 기준 45%에 달한다. 주 1회 이상 예배 참석률이 16%에 머물고,

주 2회 이상 참석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일반 시민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버지는 "18~45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군인은 일반 시민보다 주일예배 참석률이 약 두 배 높다"며 "군인은 과거부터 일반 미국인보다 종교적 활동이 활발했으며, 최근 들어 그 신앙 충성도

는 더욱 강화된 반면, 사회 전체는 더욱 세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서도 동



©pixabay

일한 추세가 나타났다. 종교를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현역 군인은 2010~2012년 39%에서 2022~2024년 44%로 상승했다. 반면 시민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30%로 감소했다.

버지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s)"를 지목했다. 미국군이 전원 자원입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앤디레이·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종교성과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출신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군이 신앙심을 강화한다기보다, 이미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 "미군이 모집 활동을 펼치기 쉬운 지역은 선거에서도 보수적

으로 기울고, 종교 활동도 활발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약 70%가 기독교인으로 분류되며, 약 4분의 1은 '기타·분류 불가·미상'으로 집계됐다.

이미경 기자

日, 中군함 100여척 동아시아 활동에 "군사 동향 예의주시·경계 강화"

개별 사안 언급은 삼가

일본 정부가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의심과 관련해 자국 주변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 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은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군사 동향에 대해 앞으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황해·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

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

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해 긴장관계를 유발시켰다.

로이터는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한 편이지만 이번 규모는 지금까지 중 가장 크며 지난해 12월 대만 포위훈련 때를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의 해상 활동이 늘어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1일 유엔에 두번째 서한을 보내자 일본이 다시 반박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 미노루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는 전후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우리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임철휘 기자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

중국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 삭제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 평양 금수산영빈관을 산책중 자리에 앉아 활동하였다 모습. © 뉴시스

사실상 북핵 인정 논란 확산… 중국 외교 노선 변화 주목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을 전하며, 중국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를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핵화’이라는 제

하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005년 발표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문서와 비교해 핵심적으로 달라진 점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의 누락이라는 점이다. 2005년 백서에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명시됐고, 2017년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체’ 백서에서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발표된 중국의 외교안보 관련 문서와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자오토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명백하게 피해왔다”고 분석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이 표현을 바꾼 배경으로 북한의 압박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수년간 핵 문제가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중국에 이를 내려놓

으라고 요구해왔다”며 “중국이 최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SCMP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북중 관계 개선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외교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존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자

신과 가까이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핵 확장을 억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백서 내용 변화는 중국의 대북 정책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할 경우,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흥은해 기자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북 발언 규탄 결의안 제출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발언에 깊은 우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사과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발언을 중심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민 보호 의무, 대북 사과 언급 등의 논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조속히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북측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종북몰이 등 정치적 갈등이 우려돼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 억류자 가족과 남북자-국군포로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통일부 현안 보고에서 남북자 문제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달 해체된 통일부 ‘남북자 문제 대책팀’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탈북 귀

한 국군포로 및 남북자 가족 면담, 국군포로 진상 규명보고서 발간과 송환 촉구, 남북 회담 및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기구를 통한 다자 외교 노력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자국민 보호 의지가 부

족한 정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도주의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안 발의가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남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전국 법원장회의, 계엄전담재판부 법안에 위헌성 우려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외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약 6시간 동안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사법제도 개편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해 사법행정 협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해는 지난 9월 임시회의에 이어 정기회의가 추가로 개최돼 사법개혁 논의가 집중됐다. 당시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이 참석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외곡죄 신설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고,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외곡죄 신설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및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원장들은 두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 재판 지연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문

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국민에게 침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며, 각급 법원이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처리를 위해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준비했던 사법보좌관 인사 제도 개편안과 법관 윤리 강화 방안, 예산 집행 과정 유의점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

중앙위원회 표결 무산… 친명-친청 갈등 본격화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당내 권력 구도에 중대한 파장이 생겼다. 온라인 표결로 진행된 이번 안건은 재적 중앙 위원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최종 통과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당원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 시도는 좌초됐으며, 이를 계기로 당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대의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논의 초기부터 내부 반발이 이어졌고, 지도부는 영남 등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며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중앙위원회 간담회 개최와 비공개 의견 수렴도 병행했지만, 최종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부결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설득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의견이 중앙위원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직접 당원 간담회까지 주도한 조

승래 사무총장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설득 부족이 원인으로 언급되지만, 당 안팎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주도권 경쟁이 본질이라는 해석이다. 1인1표제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공개 반대가 거의 없었음에도 공천 룰까지 포함한 개정안이 모두 부결된 점은 내부 권리 구조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은 주류인 친명계가 있는 가운데 비주류가 당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주류의 ‘엘로카드’로 해석했다. 그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불만이 당원 사이에 있었고, 중앙위원회들도 이를 의식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 이후 당원이 양분된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경선 이후 분열 양상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며 “당원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결과가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비托 여론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

가했고, 일각에서는 정 대표를 향한 정치적 책임론도 제기됐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부결을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 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 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 가운데 양측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후보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인1표제가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파마을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기한] 2023.01.25~2023.03.10 [사용내용]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의 진짜 의미: 변화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엘리자베스 맥컬리(사진)의 기고글인 ‘오늘날 우리에게는 1970년대 예수 운동이 다시 필요하다’(We need a 1970s Jesus Movement today)를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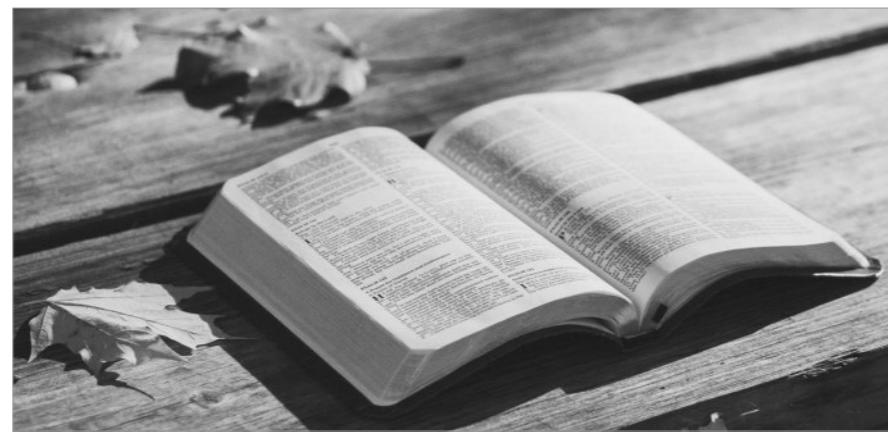
엘리자베스 맥컬리는 버지니아 MAVENS(미국의 가치, 교육, 그리고 노바 안전을 위한 어머니들)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1970년대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은 어떤 차림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 오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이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라’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죄의 삶을 떠나 예수님이 따르는 데서 오는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초대였다.

최근에 필자의 딸이 학교에서 ‘10년대 이상 복장 데이’가 있어 70년대 소녀처럼

입고 간 적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예수 운동과 척 스미스(Chuck Smith)가 누구든 어떤 사람에든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초대했던 사역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스미스 목사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기존의 모습에 머물도록 두지 않았다. 그들을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메시지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라는 진리를 제시했다. 그는 성경 본문을 불잡아 죄의 삶을 계속 정당화하도록 평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죄를 떠나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인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도 말하는 교회에 앉아 있는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체의 진리를 제시하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영원한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도록 돋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짜 복음의 차이는 생



명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필자는 1970년대 척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를 환영하되 모두를 참된 평안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나를 따르리”, “내 명에 떠라”는 교회에 앉아 있는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체의 진리를 제시하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영원한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도록 돋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짜 복음의 차이는 생

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되고 궁극적인 평안과 자유를 위해 서다.

교회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복음을 칼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이 뒤섞인 미지근한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은 “기독교적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기 위해 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 전체이며, 허석된 복음이나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참되고 영

원한 생명을 준다.

정체성과 각종 레이블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 만약 우리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죄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도록 격려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화적 정체성을 숨기거나 정당화하도록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축하한다면 말이다. 목회자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성, 결혼, 성적 윤리,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이 될까?

70년대의 ‘플라워 칠드런(flower children)’은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정체성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죄의 사슬을 뒤로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인정받는 것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청의 속에서 평안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여자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0-11).

예수님은 그녀를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죄의 삶을 떠나도록 명령하셨다. 그분은 그녀가 살고 있던 삶이 풍성함이 아닌 고통의 삶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빠진 이들을 환영해도,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끌어올려 죄의 패턴을 벼리고 소망기쁨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참된 문화적 각성과 자유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참된 평안을 찾으려면 예수께 오십시오. 아마 삶은 급진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급진적인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승연 기자

믿음과 중생의 관계, 무엇이 먼저 오는가에 대한 성경적 해답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침먼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구원의 순서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믿음인가, 중생(거듭남)인가?’(Which comes first in salvation order: Faith or regeneration?)를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침먼 목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랠리 산타 마리리타에 있는 더 스피코 워드 기독교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랜 세월 제기된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로운 난제로 여겨 왔다.

이와 비슷하게, 수세기 동안 논쟁되어 왔지만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 믿음인가, 중생(regeneration)인

가?” 하는 문제이다.

“그게 왜 중요한가?”라고 묻기 전에, 필자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성경적 하나님, 부패한 복음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정말 중요하다!

1. 구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 과정에 중생과 믿음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 동의 한다. 그런데 예소서 2장 8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 구절에는 정작 중생이 언급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2. 중생(regeneration)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중생, 즉 “거듭남”은 오직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

을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성경에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부터 나며, 새롭게 태어나며, 새 괴물들이 되며, 새 마음을 받는다는 표현들은 모두 중생의 은혜로운 역사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중생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 중생은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다.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딛 3:5) 즉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적 상태일 뿐이다. 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3.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이 정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선물,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력 같은 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선물이다.

즉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잘 투자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여 믿음을 ‘파선(shipwreck)’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실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양이나 질을 꾸짖는 것

이 아니라 믿음을 잘못 사용한 것을 꾸짖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투자함으로써 구원하는 믿음으로 바꾸라고 권면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4. 믿음과 능력의 패턴

성경 전체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믿음 →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능력.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능력을 얻었다”(히 11:11) “예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히 11:5)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졌다”(히 11:30)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강력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마 9:22) — 치유 /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

을 의롭다 하신다”(롬 3:30) — 칭의 /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갈 3:26) — 하나님의 자녀됨 /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행 15:8-9) — 중생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음이 중생을 일으켰다. 중생이 믿음을 낳은 것이 아니다.

5. 해결: 믿음이 먼저, 중생이 나중

이제 연결해 보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긴다(롬 10:17).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게 한다(롬 5:2).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갈 3:14). 성령은 중생의 주체이다(딛 3:5).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벧전 1:9)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눅 7:50) 성경은 중생이 구원을 낳는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중생이 믿음을 낳는다고도 하지 않는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다. 모든 사람에게 말이다.

6.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만약 중생이 믿음을 만든다고 가르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중생은 하나님을 낳은 딸이 먼저다.

그렇다면 불신자로 죽는 사람은 하나님 그들에게 “중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즉,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면 ‘복음’은 대부분의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7. 결론

감사하게도 성경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생에 앞선다. 불신자 가운데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살후 2:10)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전 2:4)는 은혜를 거절한 것이다. 중생은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과 달걀 문제에 서 딱은 달이 먼저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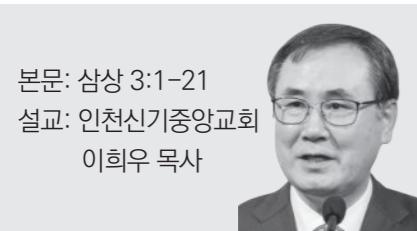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개인연세자본권 예금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유동 저활용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사무엘서 4. “은혜의 사람, 사무엘의 등장”



본문: 삼상 3:1-21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영적 타락이 심각하던 시절, 하나님의 준비였던 사무엘의 소명(vocation)을 받는다. 제사장(priest)과 선지자(prophet)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Judge)로 소명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士師) 시대와 왕정(王政) 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주역이 된 은혜의 사람, 사무엘을 보면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제사장, 축복의 통로

당시 제사장 엘리는 비록 아들들의 잘 못과 자녀교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기는 했어도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한 측면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기도 하던 하나님을 축복한 것이다. 그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뿐이 아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바치기로 서원한 하나님을 또 축복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사무엘을 대신한 세 아들과 두 딸, 즉 5남매를 더 낳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20:21). 하나님은 은혜를 엘리를 통해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그렇다.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다. 가끔 제사장의 능력이나 인격이 논란거리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에 쓰시는 도구이자 통로이다. 물론 깨끗하면 잘 나오고, 녹이 슬면 쫄쫄 나오고, 물이 많으면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는 수도관과 같은 존재인 것은 맞는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아예 막혀버린 케이스

였다. 그래서 능력은 상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있다고 해도 수도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종교 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불교는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이미지이고, 천주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이미지인 반면 기독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미지라고 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목회자의 이미지라면 축복의 통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어떤가? 성경은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했지만(벧전 2:9) 성도들에게는 이 ‘만인제사장설’이라 일컬는 제사장 의식조차 없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나칠 정도로 목회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예배가 길어지면서 축복의 통로는 커녕 아예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가 늘어났던 것이다. 예배 시작 직전 예배를 위해 스탠바이(stand by)한 성도 숫자를 확인하면서 실망했던 때가 많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교회와 거리두기’ 예배와 거리두기가 되고 말았던 것,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가?

그래서 코로나 당시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한 교회들도 있었다. 그 교회들은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자녀 세대들과 주변의 인식이 더 나빠졌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가 아니라

다. 지난 정권의 탄핵을 전후한 보수와 진보의 초대형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장으로 나가든 골방으로 가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성도들의 소명 의식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이건 별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실

추된 교회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통 터치

엘리에 이은 사무엘의 바통 터치, 이제 엘리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밝아온다. 물론 퇴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씁쓸하다. 지도자는 퇴장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운동경기를 관전하던 관중들이 “아무개 빠”라고 소리치며 기대하는 선수를 투입하라고 특정 선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보는데, 지도자는 최소한 “왜 물러나지 않나?” 하는 소리를 듣는 말아야 한다. 문제는 사회 지도자들의 퇴장이 박수보다는 비난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퇴장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아름다운 퇴장도 많았다. 하지만 세습 논란이 부끄럽고, 때를 놓치거나 육심 때문에 잡음을 많이 남긴 아름답지 못한 퇴장도 너무 많았다. 자화자찬은 또 얼마나 많은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럽다.

엘리의 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려오질 않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 그건 하나님의 퇴장 명령과 다름없다. 이어서 엘리가 늙은 것도 원인이 되었다(27절). 요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신체 나이가 더 중요하다

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이 이기 는 장사 없다”는 말도 맞지 않은가? 엘리는 나이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

엘리에게는 육심도 있었다. 아들들이 제물에 대한 육심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망치고 음행할 때도 핏줄 때문에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치지 않았다(13절). 육심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만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톨릭이 지역에 따라 교회를 정해주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없는 것과 달리 개신교는 대형교회들이 주변을 짜풀이한다. 이것도 은혜가 아니라 육심 아닐까?

결국 엘리의 퇴장은 아름답지 못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자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문이 되었고, 엘리의 마지막도 비참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4:18). 퇴장이 너무 비참했다.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잘한 측면도 있었다. 제일 잘한 것은 사무엘을 잘 키운 것이다. 제사장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Ephraim) 지파의 사무엘, 그런데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도 가르쳤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날도 성소에서 자다가 꿈결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부른 줄 알고 달려오지만 돌려보냈다. 그리고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

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8:9절). 다음 세대 준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엘리도 멘토 역할을 잘한 것, 인정해 줄 해야 한다.

문제는 바통 터치해야 할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는 뭔가에 중독된 세대 같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악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일 중독, 성형 중독… 오죽하면 어느 신문에 ‘게임, 도박, 알코올, 악물, 4대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실렸을까? 젊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뜻이다. 중독자를 정확하게 통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2021년 1월말 국동방송 특별 기획 ‘큐멘터리 ‘중독’ 제작발표회 &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중독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받는 가족들은 약 2.5배인 2천만 명, 거의 3천만 명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두렵다. 4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어쩔까? 이 정도면 전 국민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엘리가 바통 터치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세대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소명 받을 때의 나이는 가능 반(compass)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말씀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말씀 중심이 우리의 특색이자 자랑이 되어야 한다. 명상이나 의식이 아니라 말씀, 사무엘처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바란다.

Joshua Reynolds라는 화가가 1770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The Infant Samuel)이라는 작품이다. 하얀 잠옷을 입고 무릎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갈1:15)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소명은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출생할 때부터 깊이 정해졌던 사무엘,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가자 엘리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9절)라고 대답하도록 코치했다. 소명이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다(11-14절). 그 때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nabi),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18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봐도 그렇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21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으로 소명하였다.

기독교는 사랑, 성전에서 자란 사람,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등장한다. 나침반(compass)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말씀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말씀 중심이 우리의 특색이자 자랑이 되어야 한다. 명상이나 의식이 아니라 말씀, 사무엘처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바란다.

친절 바이러스



최선 목사

특히 신니면은 충주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으로 1919년 4월 1일 용원장 날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운동과 통락전승지가 있다. 국군이 북한군에게 최초로 승리했던 동라리 전투를 기념하는 동락전승비와 김재우 교사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기업과 용원저수지 그리고 평야가 드넓게 형성하여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살기 좋은 곳이다. 선조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현장인 그곳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신니면이다.

신니면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 총동부가 행정구역을 통폐합 단행하였는데 충주군 내 구역 개편 당시 출범한 행정단위였다. 신석면의 23개 리와 신니면 17개 리 그리고 덕면의 일부지역을 모아서 신니면이 탄생됐고 지금은 14개 법정리로 관할하고 있다. 1995년 1월 도농복합형태

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을 하여 오늘의 충주시 신니면이 됐다.

유구한 역사와 애국정신이 깃든 청정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신니면에는 독립만세운동지와 통락전승지가 있다. 국군이 북한군에게 최초로 승리했던 동라리 전투를 기념하는 동락전승비와 김재우 교사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기업과 용원저수지 그리고 평야가 드넓게 형성하여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살기 좋은 곳이다. 선조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현장인 그곳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신니면이다.

신니면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 총동부가 행정구역을 통폐합 단행하였는데 충주군 내 구역 개편 당시 출범한 행정단위였다. 신석면의 23개 리와 신니면 17개 리 그리고 덕면의 일부지역을 모아서 신니면이 탄생됐고 지금은 14개 법정리로 관할하고 있다. 1995년 1월 도농복합형태

점심시간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가니 개발팀 업무담당 9급 공무원이 안내를 해주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무한 봉사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과 냉대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문제다. 그들도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것이고 안하무인인 민원인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솔직히 친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민원을 들어 주면서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본인의 업무량이 많은 탓으로 돌리고 매니저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조강식 공

무원은 끝까지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세심한 배려와 빠른 업무 처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진심어린 행동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보였다.

국민과 공무원의 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응대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업무에 충실하지만 먼저 사람을 중시하는 그의 배려는 방문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친절의 바이러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인정하는 마음과 공감을 갖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보자. 서로를 칭찬하며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종종 개인과 공적으

로 공공기관을 찾는다. 넓은 마음으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서로 이해하며 흐뭇한 열매를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작금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과 행복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에 감동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다.

모처럼 방문했던 고향에서 공무원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니 행복 했다.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공무에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는 충주시청 공무원들을 칭찬하며 세심한 배려와 환한 미소가 우리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헤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창세기의 하나님과 유신 진화론의 창조자는 동일 존재인가?(2)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의
토론 후기 및 미결 쟁점 검토

II. AI를 이용한 토론

#8장면: 진화론적 관점의 AI 답변

진씨: 아래의 글을 진화론적 관점의 AI 답변이라면서 올렸다. 이때부터 AI를 이용한 토론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미시진화(소진화)는 인정하지만, 거시 진화(대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창조론자의 관점에 대한 반론

이 문제는 과학계에서도 수십 년간 핵심 논의 주제였고, 현재는 생물학·유전학·화석·분자생물학 등 여러 독립된 연구 분야의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며 거시진화를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과학적 근거들

1. 유전학적 증거 – “종 사이의 연결은 DNA가 보여준다”

과거에는 형태(뼈, 화석)로만 추론했지만, 이제는 DNA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약 98.8% 동일

인간 염색체 2번은 침팬지의 2A, 2B 염색체가 마리끌기로 융합된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융합 흔적에는 두 개의 텔

로미아와 비활성화된 중심질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 실험적으로 “인류와 유인원 조상이 분리된 시점의 유전적 사건”임이 확인됩니다.

비활성화된 공통 유전자(위유전자)들도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고래, 말 모두에서 비활성화된 비타민 C 합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공통 조상에서 기능을 잃은 뒤 그대로 전해진 흔적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흔적은 “조작”이 아닌, 수백만 개의 염기서열 비교에서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2. 화석 기록의 연속성

“화석들이 추론에 맞춰 배열된 것”이라는 비판은 이해할 만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순으로 층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연속적 화석 기록이 있습니다.

어류 → 양서류로의 전이: 티타알리(Tiktaalik) 화석은 물고기 지느러미와 사지형 골격이 절묘하게 중간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측된 지층(3억7천만 년 전 북극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파충류 → 조류로의 전이: 시조새(Archaeopteryx)는 깃털과 날개를 가진 파충류형 골격을 가집니다. 이후 밝혀진 Anchornis, Microraptor 등은 그 사이 형태를 매듭니다.

포유류의 고래 조상: 파키세투스(Pakicetus) → 암불로세투스(Ambulocetus) → 바실로사우루스(Basilosaurus) → 현대 고래

각 단계에서 다리, 귀, 구조, 척추가 서서히 수생 생활에 적응한 흔적이 층위 순서로 보여줍니다. 이 융합 흔적에는 두 개의 텔

대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현대인의 뼈를 재배열한 것”과 달리, 지층 연대·화석 형태·유전 정보가 모두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를 보입니다.

3. 돌연변이와 진화의 관계

“돌연변이는 질병이나 결합일 뿐 진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일리 있었지만, 현대 유전학은 다르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중립적이거나 미세한 영향을 주며, 자연선택과 유전자 중립 부동(genetic drift)에 의해 유리한 돌연변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효소 기능, 내성, 색깔, 행동 등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누적으로 실험적으로 관찰됩니다.

세균의 항생제 내성: 특정 돌연변이가 항생제의 표적 단백질 구조를 바꿔서 내성을 만듭니다.

렌키 랩(Lenski) 실험: 1988년부터 70,000세대 이상 관찰된 대장균 집단 중 일부는 새로운 대사 능력(시트로란 이용)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질병’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의 획득’입니다.

4. “대진화”는 미시진화의 누적 결과

“대진화”는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소진화(유전자의 변화)가 장기간 누적되면, 유전적 격리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일어납니다. 이건 실험실과 자연에서 모두 관찰되었습니다.

파리(Drosophila) 실험에서, 40세대 정도의 세대 분리 후 교배 불능 집단이 생김 → 새로운 종의 탄생

갈리파고스 편지사: 몇십 년 간의 관찰에서 부리 형태, 먹이 습성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종 분화로 이어짐이 확인됨

5. 결론적으로

DNA, 화석, 생리학, 실험진화, 생태학적 관찰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치합니다. 대부분은 단지 추론을 제시했지만, 현대 진화론은 분자생물학적 데이터로 실증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대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재 과학계의 광범위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9장면: 창조론적 관점의 AI 반론

창씨: 진씨가 진화론 관점에서 AI를 이용하여 제시한 앞의 주장에 대해 창씨 역시 AI를 이용하여 창조론적 관점에서 답변하는 반론을 제시했다.

1. 유전학적 유사성 – “DNA가 공통조상 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유사성은 공통 설계의 증거일 수 있음: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체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공통조상뿐 아니라 ‘공통 설계자’에 의한 유사한 기능적 구조 설계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유사하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것에서 진화했다고 보지 않듯이, 생물의 유사성도 설계적 목적이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염색체 융합 주장에 대한 반론: 인간 염색체 2번의 융합 흔적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창조론자들은 대흉수와 같은 격변적 사건이 지층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 돌연변이 – “진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롭거나 중립적입니다.

순한 ‘진화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위유전자(비활성 유전자)의 존재: 기능을 잃은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타락한 창조 세계’ 또는 ‘유전적 퇴화’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완전한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과 자연의 저주로 인해 유전적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화석 기록 – “중간종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중간종의 부족: 진화론은 수많은 중간종이 존재해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발견되며, 대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조새는 조류가 아닌 공룡으로 재분류되었고, 텍타알리 역시 완전한 양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화석의 불연속성: 대부분의 화석은 갑작스러운 출현과 형태의 안정성을 보여주며, 점진적 변화가 아닌 ‘종의 폭발적 등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캄브리아기 폭발’ 같은 현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층 해석의 문제: 지층의 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의존하지만, 초기 조건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대흉수와 같은 격변적 사건이 지층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4. 대진화 – “미시진화의 누적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롭거나 중립적입니다.

유익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며, 복잡한 기능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생존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는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기존 기능의 손실’로 보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Lenski 실험의 한계: 시트로란 대사 능력의 획득은 기존 유전자 조합의 손해치 일뿐, 새로운 복잡한 기관이나 종의 출현과는 거리가 멀니다. 창조론자들은 이를 ‘미시적 변화’로 인정하되, ‘대진화’로 연결되는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4. 대진화 – “미시진화의 누적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종의 경계는 명확함: 파리 실험이나 편차의 변화는 ‘종 내 다양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진정한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기보다는 기존 유전자의 발현 변화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 격리 ≠ 새로운 복잡성: 유전적 격리는 생식적 분리일 뿐, 새로운 기관이나 기능의 창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종류(kind)’ 내에서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종류 간의 변화(대진화)는 부정합니다.

◆결론

창조론은 유전학적 유사성, 화석, 돌연변이, 종 분화 등의 현상을 공통 설계, 격변적 사건, 유전적 퇴화, 종류 내 다양성으로 해석합니다. 진화론의 해석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창조론은 설계자의 존재와 목적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합니다.〈결론〉

왜 성경을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4)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4.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현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비로소 부분적인 깨달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4-1. 고린도전서 13:9-10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강해주석: 성경을 깨닫는 우리의 현

재 지식은 마치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이 부분적이며(고전13:12), 온전한 것(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4-2. 고린도전서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리라.”

◆강해주석: ‘부분적인 깨달음’의 희미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확증증명이 부분적인 지식에 머물게 하는 위험을 경고하며, 겸손히 완전한 날을 기다릴 것을 시사합니다.

4-3. 베드로후서 3:18 “오직 우리 주 고통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리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강해주석: 부분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아는 지식(깨달음)에서 자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4-4.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강해주석: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의 인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깨달음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최종적인 완전함이 올 때를 소망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4-5. 요한일서 3:2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 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강해주석: 온전한 것이 올 때(그리스도의 재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4-6. 베드로후서 1: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놓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라.”

◆강해주석: 성경 말씀(예언)은 부분적인 깨달음의 시대에 등불처럼 길을 비춥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온전한 계시, 영

감)까지 꾸준히 주의해야 합니다.

4-6. 벨립보서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강해주석: 부분적인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자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영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4-7. 고린도후서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강해주석: 부분적인 깨달음의 시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육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믿음)을 의지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4-8.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강해주석: 온전한 깨달음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미래의 진리를 지

금 현재의 실상과 증거로 불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4-9. 로마서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해주석: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은 부분적인 깨달음을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꼭 손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4-10.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강해주석: 성령의 기름 부름은 신자 안에 거하여 진리를 가르치시는 내적 교사입니다. 부분적인 깨달음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라납니다.

4-11. 디모데전서 6:20 “오직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혼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계속〉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다림

이민규 목사
웨드클웨이제일장로교회



제게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반려견 사진을 보는 일입니다. 반려견들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어릴적 정을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문제로 책임감의 두려움에 키우지 못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꼭 사랑하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려견들에게는 분리불안이라는 장애가 간혹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주인과의 과도한 애착 관계로 인해 주인과 떨어질 때 불안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울링을 한다던

지, 문 주변을 긁는다던지, 배변 실수를 하던지 등의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훈련이 발달해서 반려견이 주인 부재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반려견은 두려움에 따른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다. 모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성도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시지도 않을 분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년 전에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내 삶에 회개와 순종의 변화를 통해 오신 주

님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직접

조우하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분적이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분리불안의 장애를 경험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소망과 기쁨,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사모하시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모두 은혜의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사이를 걷는 사람들

이진호 목사
시애틀 십자가교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보게 된 옛 영화 한 장면이 마음을 오래 불잡았습니다. 주인공은 온 삶이 무너져가는 밤에, 오랜만에 전구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나마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한 점의 빛이 이상하리만치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해결된 건 아닌데도, 아주 작은 빛 하나 때문에 "아, 그래도 베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대림절은 그런 작은 불빛이 다시 켜지는 기

미 이루어진 역사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치 마음 속 오래된 방 안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느끼고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헤롯의 폭력, 로마의 압제, 이름 없는 마을의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속에 '구유의 아기'가 오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빛이 아니라, 작은 촛불 같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이 역사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두려움의 소식, 시대의 불안 정함,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속에서 겪는 작은 무게들,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괜찮다'고 덮으라는 맘이 아니라, '이 모든 어둠을 끝낼 진짜 빛이 오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이기에 소망은 더 깊어집니다.

대림절, 소망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빛을 비주셨습니다. 그 빛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으로 한 번 찾아오셨고,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는 빛과 빛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작은 전구 하나 같은 빛의 은은히 켜지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빛 하나 때문에 다시 숨을 고르고 걸음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새벽으로 이끄실 것을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社說

北 억류 10년 넘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되묻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왔다. 외신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고 확인한 건데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편으론 당황스럽다.

이날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NK뉴스 기자는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 잡혔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활동하다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NK뉴스 기자의 질문은 지난 2013~2016년 사이에 북한이 김정우·김국가·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을 불법적으로 체포·억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 태도로 보아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났다.

김정우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을 북한에 억류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곤이곧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 대통령이 뒷자리에 배석한 위 안보실장에게 "처음 듣는 얘기다. 무슨 일로 억류됐느냐"고 물은 것은 봐도 오래 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실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트위터에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에게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전향장기수는 42년 수감 생활을 하고 1995년 출소 후 자유의 몸이 된 안학섭을 말한다. 기자들에게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려 막겠느냐"며 그를 북한으로 송환 할 의사가 있음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언급한 건 현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 개선 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간접적으론 치별을 받고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원하는 대로 북한에 돌려보낼 뜻을 밝히면서 북한이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외신 기자가 도리어 당황스러워 할 정도였으면 그 장면을 지켜본 우리 국민 특히 북한 억류자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가족들의 심경은 오죽했겠나.

북에 억류 중인 김정우 선교사의 형 정삼 씨는 이날 모 TV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자국민이 억류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반응을 보면 실망뿐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아픔을 느꼈다"라고 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도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이 대통령이) 처음 들었다고 했을 때, 깊은 절망과 무력감, 분노, 불신을 느꼈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다른 납북자 가족들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에게 "아주 오래전 벌어진 일"이라는 답변에 대해 "안 난다"며 위 안보실장에게 관련 사안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런 중대한 사안을 처음 인지하고 난 후의 태도 또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예파하지 못했다면 그건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느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소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기본 소임, 그것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와 관련한 문제를 대통령이 아예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억류중인 자국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본국을 대려왔다. 하지만 김 선교사 등은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송환 노력 부족으로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꺼내지도 못했다는 건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위정자의 기본 소임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 북한 억류 선교사를 잊지 말자며 '물망초'란 이름의 민간단체 회원들과 그 가족이 외치는 절규를 한국교회가 좀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으로 한교총과 NCC 등 교계 기관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는 이 문제를 거론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 대통령이 최소한 "처음 듣는 얘기"라고는 하지 않았을 게 아닌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외면과 침묵이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한 요인이라고 본다.

35일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4년 석방된 케네스 배 선교사는 억류 기간 내내 생면부지의 시민들로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편지를 열어보며 석방의 희망,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

중요한 건 법적·외교적 절차를 통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지속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그들을 안전하게 송환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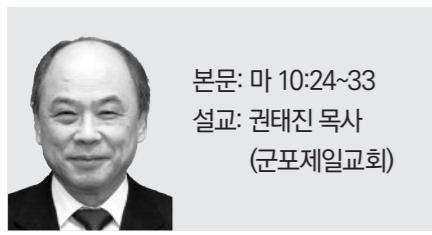
【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마 10:24-33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사람이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육체는 건강이 있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그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고운하신 후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라”(마10:1)

마음의 병, 지식의 병, 육체의 병, 암병 까지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거쳐 받았으니 거쳐 주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쳐 받았으니 거쳐 주라”(마10:8)

보내심을 받아 사역하는 이들의 의식 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감사로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전9:11)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해야 있을 때는 끝까지 견디라고 했습니다. 모든 박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1.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완전한 범죄도 없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죄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마10:24-25)

종은 상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마9:32-34)

예수님은 이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대적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

박해자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 공로를 몰라 준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 앞에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상을 받습니다. 악한 자의 계획도 드러납니다. 선한 자의 수고도 다 드러나 평가를 받고 주 안에 선행은 천국에서 큰 누림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깃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10:27)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삼하12:12)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은밀하게 죄를 덮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 백주에 드러날 것임을 알아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둘과 영혼을 능히 지역에 멀리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10:28)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소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2:1-2)

육체를 가진 걸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롬7:22)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도”(고후4:16)

속사람이 얻는 영광은 풍성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령으로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3:16)

이 땅의 권세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심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경제, 외로움, 질병,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환난과 죽음은 속사람 영혼의 실력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6:15)

육체는 음식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유지됩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3.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내 두 마리가 한 잇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안목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할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잘 불어있으면 그 열매는 원줄기의 실력으로 맺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마10:31)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보호하심 같이 믿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일하는 새, 맷이를 찾는 새, 겨울의 산새, 눈 덮인 곳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고 노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령 감당할 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시냇가에 엘리야를 깨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예

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 빙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14:19-21)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10:32)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이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성령의 능력만이 복음 전파의 능력임을 믿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병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굴·조개 어패류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 급증 ‘이 질환’

평균 잠복기 12~48시간… 구토·묽은 설사 등 증상
외출 후 반드시 손 씻어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연말·연초 모임이 늘어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와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식중독은 흔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철이 더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노로바

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4279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약 49%가 12월부터 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할 만큼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을 의해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설인은 물론,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설인은 물론,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김정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경증 탈수는 경구 수액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

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70°C에서 5분, 100°C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굽조개류는 충분히 억제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을 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껌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연말 모임에서는 술잔이나 식기 공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는 습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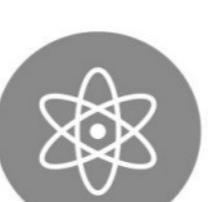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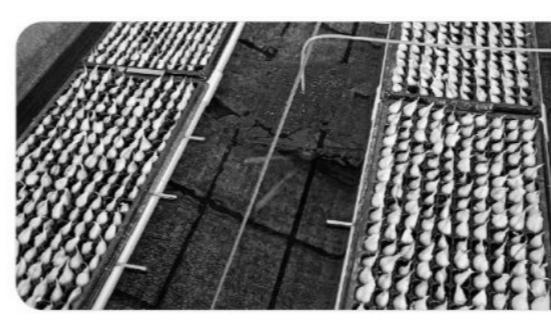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제품 구매하려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새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아쿠아
인증번호: 제10307836호 학업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록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독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랑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 본교가 인증하는 타 신학학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학업 가능.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독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반 운영.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0장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NCS생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을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낙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34)

「바른예수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당 등)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2024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도 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세, 네쌍둥이라 할리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많다고 하지요. 살아가는 모양도 천재만상입니다. 왕복표 한 장을 617억 원에 사서 짧은 시간의 우주 관광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면, 지금도 아랫부분에 대충 아랫동물처럼 징글 숲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비민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세계 도처에서 굽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 저살자가 많기로도 잘 알려진 일입니다. 비참한 형편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특별한 사명感의 때문에 웃곳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오랜 기간 임신이 안 되자, 교회나 질간을 찾아 임신을 소원하는 기도를 친절히 하기도 하는 반면에, 것 넓은 이끼를 나다 버리는 여인도 간혹 있습니다. 또 스승을 따라, 죽는 데도 기겠다는 예수의 제자도 있으나, 종내 예수의 제자가 못 되고, 도리어 노예 한 사람값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는 고인들을 전국으로 인도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갖고 온갖 고난의 기관을 보내는 목회자가 있나가 하면, 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무식을 이용하여 세속적 이익을 대 할인인 목회자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 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아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방향 및
성령의 역사**

**신청
방법**

**한샘
교회**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현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기독교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無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어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신간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에 관한 한 이처럼 균형 잡힌 책이 있었던가.” 김영봉·이정규·김명선 목사가 한목소리로 추천한 신간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온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신선한 길잡이를 제시한다. 성령을 ‘의 숙한 타자’로 호명하며, 그분을 주변부로 밀어낸 신앙의 빗장을 다시 채우도록 돋는 안내서다.

많은 신자가 영적 체험을 원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격적 관계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혼란스럽거나 과장된 가르침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경과 교회 전통, 실제적 영성훈련을 토대로 독자가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안내한다.

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령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신학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경험과 신앙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한다. 독자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 임재를 드러내는 다양한 성경적 이미지와 은유를 탐구하면서 그분을 이해해 온 지점을 바로잡게 된다.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성경과 성령의 일치’다. 저자는 종종 분리되어 온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는지를 설명한다.

더불어 영적 성장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우리의 일상이 벌려 놓은 괴리를 줄여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며 그리스도인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 행위 주체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세 독자층인 영적으로 목마른 이들, 성령을 의심하는 이들,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짜필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길을 제시한다: 갈망에 얹어 부여하고, 그 갈망을 기도로 이끌며, 기도가 삶으로 확장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실제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한다.

교단과 교파 배경을 막론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균형 잡힌 지침이자 도전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책은 특히 ‘분별’을 퍼즐처럼 풀어야 하는 난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자 선한 목자의 인도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보다, 시간을 내어 그분 앞에 머무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저자의 통찰은 많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다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몰라서 멀어진 신앙의 갈라진 틈을 다시 잊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혼란과 오해를 넘어, 성령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로 다시 초대하는 이 신간은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이해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은 거룩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창 1:26, 27).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인 인간의 육신을 땅의 흙(the dust of the ground)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God's Breath)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the breath of life)이 되었다고 성경은 중언한다(창 2:7). 즉 흙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고전 2:12; 롬 8:9).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최초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 때를 범함으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다. 내적인 질의 변화를 말한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또는 전적 부패(Total Corruption)이라고 말한다.

손태남 신경신학'



사실 나는 전도회장이 되기 전부터 전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우연히 40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좋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살싹 느슨해진 신앙의 텐션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뜨면 눕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교회가 멀다는 평계를 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었다. 아침잠이 많다는 평계를 맬 수도 없었다. 아침잠이 많은 내 눈이 4시면 번쩍번쩍 떠지는 게 아닌가! 결국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도 무엇에 이끌린 듯 계속 기도가 이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경희 ‘어서 와, 전도회는 처음이지?’



내 뜻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다.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다. 결국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는 결말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르다. 일단 응답이 빠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의 기쁨과 삶을 주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다. 이전에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자주 보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한다.

서진교 ‘나를 살리는 기도’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대를 이어 은혜 받는 가정예배를 위하여

신간 ‘따라하기만 해도 은혜 받는 가정예배’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영적 실천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결같이 말한다. “가정예배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고, 따라하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신간 『따라하기만 해도 은혜 받는 가정예배』는 그 고백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돋는 52주 가정예배서다. 열왕기하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굵직한 흐름을 따라가며, 자녀와 함께 성경의 핵심주제를 예배로 배우도록 설계된 가장 실용적이고 친절한 가정예배 안내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문 전체가 풀테스트(full-text)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도 더듬더듬 따라 읽으며,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흡수할 수 있고, 부모가 준비하지 않아도 읽기만 하면 예배가 진행되는 부담 없는 구조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구성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풀테스트 예배문 ▲아이도 직접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쉽고 흥미로운 내용 ▲예배와 성경공부, 다음세대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연초가 아니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종교화의 흐름 속에서 다음세대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오늘, 가정예배는 신앙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가정예배서를 연구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현대 가정의 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예배서를 탄생시켰다.

저자는 “다음세대 신앙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며, 그 현장은 가정이다.”라고 강하게 강조한다. 가정예배는 단순히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영적 회복의 장이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과 용서를 경험하며 신앙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며 가정예배는 믿음의 전통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다.

가정예배문 예시와 찬양, 성경 읽기, 설명, 기도까지 하나의 예배가 온전히 담긴 형태로 제공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인도할 수 있으며, 성경의 흐름과 교리가 자연스레 이어진다.

『따라하기만 해도 은혜 받는 가정예배』는 가정예배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부모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다.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가정에게는 구체적 도구이며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고 싶은 교회에는 확실한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물려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만 따라 해도 충분하다.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순간, 은혜는 이미 시작된다.

최승연 기자

뇌 안의 학습 코드를 깨우는 법: 아이의 집중력과 성적을 바꾸는 뇌과학적 접근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부의 차이, 뇌 성장에 주목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요?” 많은 부모는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나 앉아 있는 시간 헛으로 돌려왔다. 신간 『뇌 안에 잠든 학습 코드를 깨워라』는 공부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뇌 발달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 이민주 고려대 교수는 아이마다 1만 개의 학습 코드가 있으며,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설계해야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부는 뇌가 하는 일이며 뇌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발달 속도와 자극 반응, 정보 처리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 결과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현상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은 학습 습관이 즉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하루 1퍼센트씩만 나아져도 1년 뒤에는 큰 변화가 생기며, 하루 10분 복습 같은 작은 습관이 학습 코드를 바꿀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책은 뇌가 가진 기억, 자기조절, 감정, 집중, 가소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비유와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외웠는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공부 부족이 아니라 감정과 맥락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계획만 있고 실천이 부족한 것은 전두엽의 성숙이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게임에는 몰입하면서 공부는 10분도 어려운 이유도 감정이 뇌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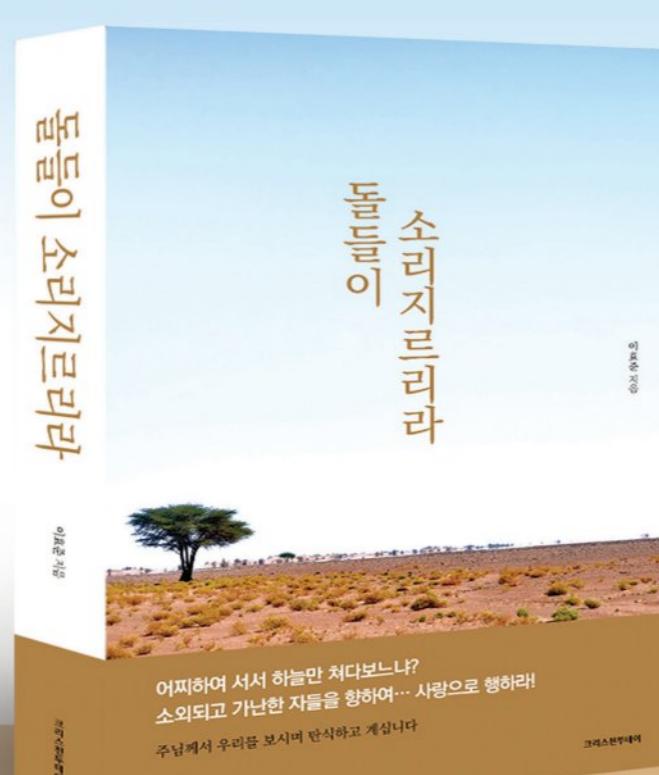
책은 선행학습에 대한 통념 역시 다뤘다.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문제 유형과 공식을 빠르게 찾지만,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고, 두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졌다고 했다.

이민주 교수는 고려대 영재교육원에서 활동하며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300건 이상의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웨슬러 지능검사 등 진단 도구로 아이의 뇌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코칭을 제공한 경험을 책에 담았다.

책은 부모가 아이의 뇌 발달 상태를 이해하면 공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 뇌의 코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아이의 집중력과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학습 관점을 제안했다.

이나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증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날새를제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3)

제5장 기독교역사와 사단의 활동

어떤 자(한국침례교 성령교회의 김기동)는 기독교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한판 승부에 대한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림하였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단과 계속적인 싸움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논증하거나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사단은 첫 사람 아담을 공격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역사에 끊임없이 끼어들어 온갖 오만 방자한 악행을 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악행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융기 1장 6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어떤 물지각한 자들은 융기 1장 6절부터 12절을 함부로 오해하여 사단의 활동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에 의하여 허락되었으므로 아담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도입된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행을 정죄하시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악행을 오히려 섭리 역사에 적용하신다는 이유에서 사단의 활동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신적 작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아니라 관용적인 섭리입니다. 사단은 이미 정죄 받았으며 심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단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용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오만 방자한 악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며 오히려 사단의 악행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유유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적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무너뜨린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훼방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러한 훼방을 오히려 적절하게 아우르시면서 당신의 섭리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군분투하며 헛수고를 하는 사단의 불쌍하고 피곤한 모습과 그것을 유유하게 다스리시며 오히려 그것을 시의 적절하게 적용하시어 승리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

나님의 기독교역사를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악전고투하는 사단의 어리석은 활동과 그것을 멎지게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유유한 섭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제6장 기독역사와 성령의 사역

어떤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장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기독교의 출발에서부터 함께하셨고 기독교의 모든 진행 과정에 쉼 없이 역사하시며 기독교의 역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촌각의 틈도 없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영원히 함께하시

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낱낱이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제7장 시대적 기독교의 특성들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세계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은 각자에 부여된 고유한 사명에 따라 자신들의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러한 영역 사회적 역사성은 기독교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며 중심인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시대와 영역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 교회들에게 개 교회적인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또한 시대적 또는 지역적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역사를 정립하는 과정에 개 교회적으로 부여된 사명을 정리하는 동시에 시대적, 지역적 교회들에게 연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을 신학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정리합니다.

제8장 기독교의 비진리적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지만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과 진리 안

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교회들의 비진리적인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학적 차원에서는 사단의 흥개이지만 신앙적, 사명적 차원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열악한 신학 수준과 그로부터 비롯된 오류적 신앙, 그리고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과 사명감의 부재 등등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비진리적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독교역사가 비진리적인 것으로 얼룩진 이면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각종 육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명예욕, 권세욕, 권위욕, 재물욕, 지위욕, 성욕 등의 육심을 채우기 위하여 각종 비진리적 행위를 전개함으로써 기독교 역사를 폐면으로 얼룩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비진리적 역사들을 묵묵히 품에 안으시고 아우르시며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진리적 교회 역사들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의 교회들과 미래 교회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립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Q)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인간의 한평생 동안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옥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마태복음 25:46).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제의 정당성을 놓고 씨름합니다. 사람들은 불과 70년, 80년, 90년, 심지어는 100년간 죄를 지은 인간의 생애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보응하시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유한한 죄인의 삶이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지상 생활의 길이와 관계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합당함을 분명히 말해주는 두 가지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시편 51:4).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은 죄인 가에 어느 정도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범정에서 개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은 일반적으로 벌금형과 단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한 신체적 폭행은 평생 징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벌은 범죄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임에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도 무한히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범죄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로마서 6:23)?

둘째, 성경은 사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완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의 악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영원히 마음이 완악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슬퍼 울며 이를 갈”(마태복음 25:30) 수는 있으나, 회개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의 본성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들은 죄에 오염되고, 악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존재가 될 것이며, 영원히 구속되지도 거듭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谬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반역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반역이 심판받은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요한계시록 20:14-15; 요한계시록 16:9, 11 참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죄를 짓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네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죄 속에 머무르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과 그 결과를 영원히 존중해주실 것입니다.

갓퀘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Isaiah 58:11 NIV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he will satisfy your needs in a sun-scorched land and will strengthen your frame. You wi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 guide: 인도(引導)하다
-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 needs: (주로 복수로) 요구
- sun-scorched: 햇볕에 말라붙은
- strengthen: 더 튼튼하게 하다
- frame: 뼈대, 골격
- well-watered: 급수가 충분한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10) 현대인의 명상, 상담과 정신 치료의 핵심 도구이다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심리치료에 통합
된 명상
명상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주의 (Attention)와 인식 (Awareness)을 반복 훈련하는 체계적인 심적 수련법이다. 현대 심리상담과 정신 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명상을 핵심적인 치료 도구로 통합하며, 그 효과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명상이 치료에 통합된 배경은 기존 치료, 특히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가 인지(생각) 자체의 내용이나 구성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명상은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을 획득하도록 돋는다.

명상이 심리적 고통을 다루는 두 가지 핵심 기전
명상이 정신 치료에서 발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크게 탈중심화(decentering)와 수용(acceptance)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두 기전은 주의 조절, 정서 조절 등 명상의 세부 작용

메커니즘의 기반이 된다.

1) 탈중심화 (Decentering): 생각에서 거리두기

탈중심화는 '생각하는 나와 떠오르는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내담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실패자다'를 객관적인 사실로 여겨 그 생각에 완전히 압도되는 인지적 융합(Cognitive Fusion) 상태에 빠지기 쉽다.

치료적 효과는, 명상 훈련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을 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인식하며, 생각하는 나와 생각 그 자체를 분리한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창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2) 수용 (Acceptance):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기

많은 심리적 고통은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불안, 슬픔 등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는 시도(경험 회피, Experiential Avoidance)에서 발생한다. 명상은 이러한 회피가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전제하에 비판적 수용을 훈련한다.

치료적 효과는 내담자가 명상을 통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그 감정과 관련된

몸의 느낌(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도록 배운다. 이것은 고통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돋는다. 수용은 특히 불안장애, 만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회



현대 심리상담과 정신 치료 분야에서는 명상을 핵심적인 치료 도구로 통합하며, 그 효과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pexels

피경향이 강한 문제에서 강한 효과를 보인다.

명상이 통합된 주요 심리치료 모델

명상적 요소는 다양한 현대 심리치료 모델에 맞춤형으로 통합되어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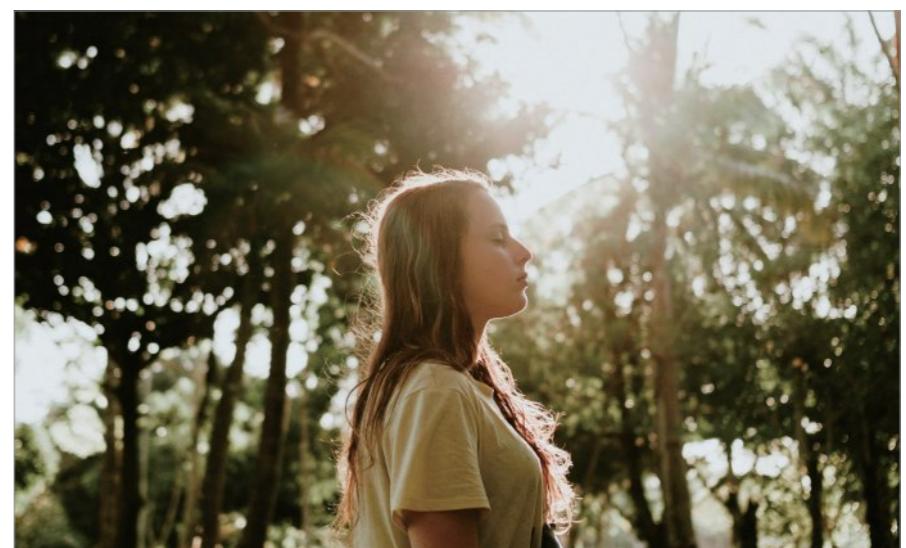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는 주로 우울증의 재발 방지(relapse prevention)를 목표로 하며, 명상의 탈중심화 훈련을 통해 내담자가 부정적인 기분에 휩쓸리지 않도록 생각의 고리를 끊는 데 중점을 둔다.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서 MBCT는 우울증 재발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경계성 성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와 같이 극심한 정서 조절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DBT에서 명상의 핵심 역할은 현재 순간의 기술

(Mindfulness Skills)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강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고 정서 조절 능력을 즉각적으로 발휘하도록 돋는 것이다. 이는 BPD 환자의 자해 행동 및 자살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용 전념 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광범위한 심리적 어려움에 적용되며, 고통스러운 내면 경험을 수용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가치에 맞는 행동(Committed Action)에 전념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CT는 증상 제거가 아니라 내담자가 고통을 겪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돋는 데 강점이 있다.

심리 과정과 신경 기전의 연결
명상 기반 치료를 하면,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뇌 기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뇌 영상 기술로 확인되고 있다. 명상 수련은 뇌의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



명상이 정신 치료에서 발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크게 탈중심화와 수용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pexels

은 변화를 유도한다.

집행 통제 능력의 향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전전두피질 (Prefrontal Cortex, PFC)과 전대상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이는 자동적이고 비효율적인 반응 패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서 반응성 조절 향상으로 감정 처리의 핵심 영역인 편도체(Amygdala)의 반응성이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조절되어, 정서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반추 감소 효과로 끊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회로인 디플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의 활동성 변화는 고정된 자기 서사에서 벗어나 탈중심화하는 능력과 적응적으로 연결된다.

명상의 치료적 의의
상담과 정신 치료에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경험을 다른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도구이다. 명상을 통해 훈련된 탈중심화와 수용의 태도는 치료실을 벗어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내담자가 고통에 덜 취약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삶의 목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명상 기반의 치료 모델들은 신경과학적 변화를 동반하며, 내담자에게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정신 건강을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한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미 코헨대학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오늘의 예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오래 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 이 고아원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물음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있어요. 열 살짜리 여자 아이인데 매우 흉한 꼽추예요. 단지 이

름만은 좋아서 머시 굿페이스(Merch Goodfaith: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이지요.”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서 그 아이와 함께 떠났다.

35년이 지난 후, 아이오와 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은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

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셨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

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꼽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이다.”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주고 보기 흉한 고아를 보살펴 줄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머시 굿페이스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배반으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인생 최대의 갈망, 로버트 슬러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온예의샘물 대중문화와 그리스도인 (1)

[마태복음 5장 13-16절]

사마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 밑에는 샘물이 솟고 있었다. 뜨거운 사마 한복판에 있는 그 샘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였다. 사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나무 아래에 와서 쉬면서 샘물로 목을 죽이곤 했다. 그런데 그 샘물은 돈을 받고 샘물을 파는 임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샘터를 돌아보던 주인은 그 커다란 나무가 물을 흡뻑 머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인 줄 모르는 주인은 생각했다. '만약 나무를 없애 버린다면, 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도 모두 샘에 고일 것이고 그러면 장사도 그만큼 잘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인은 나무를 베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샘물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말라 버리고 말았다. 햇볕을 가려주고 모래바람을 막아 주던 나무가 없어진 샘에서 물이 솟을 까닭이 없었다.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돈을 욕심 냈던 것이 결국 모두를 잃게 하고 만 것이다. 오늘의 대중문화가 바로 이런 것 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사마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이 되고 파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대중문화의 현주소가 아닐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다. 짐승이라고 해서 지능이 없거나 감정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사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나 지성의 산물인 학문이나 과학의 발전이 없고, 감성의 산물인 고차원의 종교나 예술의 표현이 없다. 이성에 통제된 또는 절제된 의지

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인간의 사회 활동의 산물인 독특한 문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다. 나면서부터 소속 공동체의 사회 환경에 예속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죽는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그들 나름의 질서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문화라는 것이 없다.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문화에는 배움과 축적과 전승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모든 문화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문화를 배우고, 배운 것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가미하여 축적하고, 축적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른 동물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이 된다. 그러나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문화라고 하기는 않는다.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독특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 특히 문화를 창조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성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도 동물적인 본능이 동전의 다른 면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동물적인 본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본능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선물이 오,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점인데, 이성조차도 올바른 교양을 쌓지 못하면 오히려 저질 문화, 타락 문화를 양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의 모델로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한 성가대원을 발견해 작품을 시작했다. 피에트로는 예수의 모델이 된 후, 로마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가서 나쁜 친구의 괴롭힘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편 예수의 모델을 구해 작품 완성에 큰 성과를 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 장벽에 부딪쳤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다빈치는 마침내 모델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였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

라 예수도 되고 유다도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교양의 정도에 따라서 짐승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천사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성이란 선천적인 인간 본질의 덕성 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교육된다고 볼 때, 18세기에 시작된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19세기의 진화론, 20세기의 실용주의 철학과 세속 인문주의가 주도한 대중문화와 학교 교육은 실로 오늘의 문화를 저질 문화로 이끌어 온 맥이오 정신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 정신이 지난 200여 년을 주도해 온 교육계의 정신이다.

신상언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중문화의 타락상이나 그 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지하고 있는 줄

안다. "사탄이 대중문화 속에 죽음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둠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다. 록 음악 속에도 있고 음란 소설이나 만화 속에도 있고, 영화와 비디오테이프 속에도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오락물을 비롯해서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향락 문화 속에 타락을 재촉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게 담겨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언의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의 주제는 타락 문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대중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동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구제 불가능한 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치료 가능한 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기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없는 대중문화 과연 구원의 대상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대상인가?

문화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라고 말했다. 우리 문화 역시 종교의 표현 양식을 빌어 축적되어 왔고, 무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가 우리 문화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 문화는 무교 문화 위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습득되고 축적되어 전승된 혼합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 문화적 텃밭에 이미 200여 년 전부터 기독교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가꾸어져 왔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성장은 쑥쑥 잘 되고 있는데,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많아 결실이 많지 않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전통 문화 위에서 기독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인지, 아니면 복음이 왜곡되어 전달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기독교인 인구는 많아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 기독교 복음이 사회 속에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신상언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중문화의 타락상이나 그 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지하고 있는 줄

교회오빠

바치고 베풀 후에 풍성히 받으라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진짜 풍성한 복을 받고 참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워도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줄 때 주고 쓸 때 쓰면 하나님께서 꽉꽉 누르고 흔들어 줄줄 넘치게 해서 안겨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원시안을 가져야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은 복 받기 위해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반드시 보상과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이 죽어서 성전으로 들어와야지 산 채로 들어오면 안 되고 채찍

으로 내쫓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도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체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만 순종했습니다. 39일 길을 걸어오도록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둑어놓고 칼을 들어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며 준비하셨던 양으로 대신 제사 드리게 하고 아들을 장막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지성소에 있던 독자를 내려 보내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계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잔인하게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

고 있다면 용감하게 죽여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마음 놓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죽어야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시안으로 눈앞의 이해타산만 따지지 말고 죽음 저편에 번창하는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AIIC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가 되는 인생을 꿈꾸며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의 심령도
약해져 있다면 참 낭패
다. 불경기와 여리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
위에 닥칠 때 정말 뭔
가 즐거운 일 혹은 기
쁜 일이 생기면 참 위로가 된다. 게다가
그 기쁨 혹은 즐거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으리라. 성경에는 우리
로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을 말씀하신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의 힘이나라

This day is sacred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벧 8:10)

새 집과 새 차, 새 오디오, 애완동물 등
을 구입해도 느낄 수 있는 흥분과 기쁨
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환란 가운데 피난처
요,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로 선물해 주시
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말
씀하신다. 같은 문맥의 말씀이 야고보서
에 나온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
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

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
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
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
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
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 1:2-8)

또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
험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
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에 대한 찬양과 높임으로 점령하는 것
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
리로다

I will sing to the LORD all my life;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시 104:33)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참으로 두 날 가진 견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 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
도다

Let the high praises of God be in
their mouth, And a two-edged sword in
their hand (시 149:6)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는 온도계 인생이 되지 않고 어떤 날씨
침잠하게 만드는 여리가지 삶의 요소들
에도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과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 인생이 되어 인생을 끌마치는 날까지
이렇게 다짐하자. 나는 더이상 수동적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 성도의 인생이
로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
되자고 말이다.

◆ 조성환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
과 과정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
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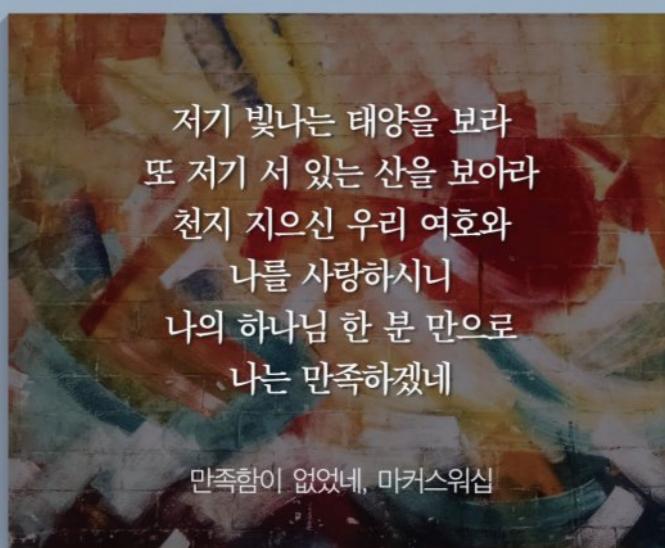
찬송가 가사를 통해 묵상하는 성경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
주로 고백하는 모든 기
독교인들은 주일날 교
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손에 성경과 찬송
을 들고 옵니다. 기독교
인에게 있어 성경과 찬
송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찬송가』가 새
롭게 편찬된 뒤로 그 속에 새롭게 담겨진
찬송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찬송가 속에 담겨 있는 645장의 찬

찬송한 모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만족함이 없었네, 마커스워십

그런데, 찬송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찬송가에는 찬송 외에도 그
찬송을 잘 이해하도록 돋는 여러 가지 부
수적인 내용들도 담겨있습니다. 예를 들
면, 찬송가 앞부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
경, 그리고 설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
고 제목분류로 각각의 찬송들이 어떤 주
제별로 항목화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
며 교도문뿐만 아니라 운율색인, 성구색
인, 곡명색인,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색인,
나리별 색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송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돋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은 각
찬송가의 표제제목 바로 밑에 적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각
찬송의 제목 밑에는 그와 관련된 성경말
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이 찬송가 뒷부
분의 색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할
때에 찬송으로 끝나지 말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즉, 찬송과 말씀을 상호 연결시
킨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송가의 가
사내용은 반드시 찬송가 밑에 붙어 있는
성경구절과 상호 연결되는 내용임이 분명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
지지 못했던 묵상방법-찬송가의 가사내
용과 성경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방법?을
추구하며 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찬송
가 가사를 통해 묵상하는 성경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말씀 -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
께서 나를 불드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는 일상생활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
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21세기 찬송
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신양인들이
그런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찬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봤었
으니
1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봤었으니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언제? 아침에 일어났

을 때 고백)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밤과 아
침 사이에 무슨 일을 말하는가? - 계시
를 받는 일이 있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보오리라

성경말씀에 근거한 찬양가사 - 찬양
제목 밀 성경 말씀 - (창 28:11)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배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 이야기다.

- 왜 야곱일까요? 그 이유가 또 다른 찬
양에 나옵니다.

(찬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 (찬송가 390장 - 예수가 거느리시니 1
절)

2절) 내 고생 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
개 베고 잠 같습니다 (고생-돌베개: 동격)

돌같은 고생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잠들 때 기도제목 - 자면서라도 꿈에

서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주께 나

가기 원한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 뒤에는 어떤가요?

- 4절

4절) 야곱이 (언제?) 잠깨어 일어난 후
(무엇을?) 돌 단(돌 제단)을 쌓은 것 본받
아서

술집 때 되돌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잠자기 전 드렸던 기도가 성취되었다.

- 꿈속의 하나님을 만났다)

2절과 4절이 연결됩니다!

2절: 야곱이 잠들기 전의 내용이고 (밤)
/ 4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뒤의 내용입니다.
(아침)

그럼 그 밤과 아침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야곱에서 하락된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

2절에서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
서 / 4절에서는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

하면서..

이것 역시 성경말씀에 근거한 찬양 -
찬양제목 밀 성경 말씀 - (창 28:12)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
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 누
구? 야곱 이야기

여기야 야곱이 경험한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1) 잠들 때의 상황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 돌베
개가 상정하는 것은 고생입니다.

(돌처럼 무겁고 차가운 고통 고민 고로
움 - 마치 그 베고 자는 돌만큼이나 무거
운 것들)

2) 잠자기 때의 상황

잘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

천사, 하나님? 천국을 향하는 사다리

3) 잠에서 깨었을 때의 상황

잠에서 깨어나서 간밤의 은혜를 기억하
고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 김철웅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 신학
대학교 대학원(Th.M)에서 공부했고, 미국 McCormick 신학교(M.A.T.S) 졸업
후, 미국 루터교단(LCMS) Concordia 신학교에서 음악선교학(Ph.D)을 전공했
다. 현재는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업
대학원 외래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적! 마틴 루터도 CCM 사역
자였는가?』, 『주적! 찬양도 설교인가?』, 『주적! 음악선교는 가능한가?』, 『
주적! 유니아는 여자 사도인가? (신간)』 등이 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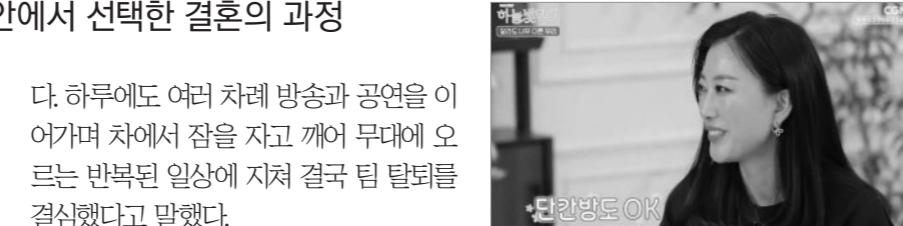
대한제지

전성기 뒤 찾아온 새로운 인연, 스페이스A 김현정의 결혼 이야기

인기 절정에서 팀 탈퇴 후 신앙 안에서 선택한 결혼의 과정

그룹 스페이스A 출신 가수 김현정이 목사인 남편과의 만남을 공개하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다. 김현정은 최근 유튜브 채널 CGN 콘텐츠에 출연해 전도사였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해 소탈하게 이야기했다.

김현정은 스페이스A 활동 당시 '섹시한 남자'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누렸다고 회상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섰지만 인기를 얻는 과정 속에서 교만해졌다는 고백도 덧붙였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솔로 컴백을 준비 했지만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컴백 시도는 세 차례나 무산됐고, 결국

보컬 트레이너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예상하지 못한 순

회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현재

CGN에 출연해 간증한 가수 김현정 사모 ©영상 캡처

던 중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끊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 자연스럽게 교

회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현재

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김현정은 교제 과정에서 남편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당시 나이도 31세였던 만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돈은 있더라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사랑을 선택해라'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김현정은 그 말을 곱씹으며 "이 사람은 단칸방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화려했던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그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최승연 기자

체험형 전시 '킹 오브 킹스: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 가족 관람객 증가



체험형 전시 공간의 모습. ©자이언트스텝

체험형 전시 '킹 오브 킹스: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The Greatest Love)'가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자이언트스텝은 "주말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방문이 늘고 있으며, 11월 29일 토요일 기준 약 500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전시는 지난 10월 개막 이후 네이버 전시 부문에서 4.8점대(5점 만점)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본 전시는 장성호 감독이 제작한 동명 영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관람객이 이야기 속 인물을 직접 체험하도록 기획했다"며 "메시지 전달과 체험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했다.

해당 전시는 롯데몰 김포공항점 전시홀에서 진행되며, 관람 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노형구 기자

고인이 된 목회자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 흘린 작곡가 주영훈



MBN '속풀이소 동치미'에서 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음악에 대한 기억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소 동치미'에서 작곡가 주영훈이 목회자였던 부친을 그리워했다. ©MBN

작곡가 주영훈이 방송에서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소 동치미'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주제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사랑을 소개했다.

이날 주영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

상의 모든 음악을 사탄의 음악으로 여겼다며 당시 자신에게 거친 표현까지 했던 기억을 언급했다. 그는 아버지가 꾸짖으며 '이 마귀 새끼'라고 말했고, 자신도 서운한 마음에 '아버지가 마귀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음을 보였다.

주영훈은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이 총 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한 신앙과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 자구상에 주영훈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주영훈의 부친이자 배우 이윤미의 사아버지인 고 주성봉 씨는 지난 3월 9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342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 월금(48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소 통(39회) 대인관계에서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극복사례
	6:00 00 새벽을 깨우고 함께 진주초대-이경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2) (사무엘하 6:1-11) 30 생명의 말씀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권준)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578회) 50 하윤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자막)(3회)	00 생명의 양식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자영아)(361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화(97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7회)
	7:00 00 CTS뉴스W(29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은혜의 성찬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다시 회개의 삶이 솟아나기를	20 행복한 쉼터 이리산광(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김대성)	30 휴먼네컷(52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9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말하는 시간(1683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8:00 20 내가 말이 기쁘게 대체 이 부부는 뭘래!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김신용 목사 & 김영숙 사모	20 조정민 목사의 담담답답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한(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경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1회)	00 하나님의 음성(102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7회) 고린도전서 15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32회) 성경 속 화폐 이야기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길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10강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김학필)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이제일)	00 [말씀] 박태호 목사(방주교회)(94회) 40 Q&A 107 소요리문답(61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9회)	10 새롭게 하소서(1137회) 이재국 목사	00 성지가 좋다(508회) 토크쇼 애굽을 말하다
	10:00 00 오마이갓생(6회) 농부 채희도 성도 편 2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믿음의 터倒霉, 순종의 순도	00 사랑의 꽃 꽂 때	20 THE NEW 하늘빛향기(8회)	00 파워인터뷰(206회) 20 CBS 창사 71주년 특별모금방송 1부 생명을 살리는 기적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57회) 탄자니아 이용기-권영옥 선교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화성만나무료급식	00 비전설교 가나안(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7회) 50 예수동행일기(6회)	50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34회)	00 성지가 좋다(국내편(45회) 고군산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3회) 50 성전의 소리 성천교회 오원호 목사
오후	12:00 00 CTS뉴스W(29회) 20 신앙에세이 서인석 목사(목포창조교회)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꽃(신용대)	1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8회) 20 [말씀] 이건호 목사(손복음대구교회)(15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쟁사(1회) 모든 전쟁의 시작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라클(262회) 사모하는 주님 향한 감사보고 30 구자연 목사의 트루 찬양교실(1회) 감동교회 편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전남양) 30 행복한 쉼터 충일(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42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6회)	00 올포원(690회)	30 성지가 좋다(500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1부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월드풀무연(9회) 새로운 시작 앞에서 회피한 경험이 있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44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이카데미 숲(18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57회) 탄자니아 이용기-권영옥 선교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286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96회) 민수기 12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오히려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안병찬)	00 하윤조 목사의 요한복음을 강해(75회) 4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8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712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4회) 50 만나는 교회(17회)	00 내 삶의 행복(185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워십 김성권(부산대양교회) 50 신앙에세이 조아진 목사(충주에덴교회)	00 조정민 목사의 담담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조이엘)	30 2023 KGMLF(6회)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마을(김영준)	00 강연소 통(39회) 대인관계에서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극복사례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30 주대한 유산(9회) 서서평 선교사	1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40 깊은 윤리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162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6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교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20 [드라마] 더초즌 시즌3(5회) 치유와 정결2 (15회)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김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5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00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1부 30 복음강단 청주사립교회 정승관 목사
	20:00 20 더워십 이재은(강릉반석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비전설교 해성(정명호) 40 김신숙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2월 08일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7회)	00 TV강단 순복음왕당(고경환) 50 크리스천컬럼 중앙성결(한기체)	00 비전메시지 강남반석교회 한재우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자구산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30 말씀노트: 말씀한창(2회) 시편 46편 50 CTS뉴스 12/8(월)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교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SNS청년부-(54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7회) 고린도전서 15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4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57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10강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밤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2월 08일 30 고향교회 리턴즈_믿음원정대(7회) 50 예수동행일기(6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37회) 이재국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브(505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91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1강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초대하시는 하나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4회)
	23:00 10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 140년 전의 사랑, 오늘의 시명으로	00 이단 사이렌	1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502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올 필름 <요한복음>(18회)	10 더 콜링(163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33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일기는 시간(1683회)	00 장중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비아초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천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9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 주만 바라볼지라	00 힐링스토리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2월 08일 20 [말씀] 최경우 목사(또감사선교교회)(254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1회) 50 성경토크 이것이 궁금하다(88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믿음의 터倒霉, 순종의 순도 40 내가 말이 기쁘게(3447회) 하나님의 사랑꾼, 기수 원혁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족교회)(214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559회)	00 CBS 이카데미 숲(185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4회)	00 만나 U(7회)
	2:00 30 사인사색 - 고당 조만식 장로 / 김선교 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영익 목사(엘살롬교회)(400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10강 50 힐링스토리(71회) 원종수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18회)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383회)	00 맷나는 교회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xion innovation

SK
이노베이션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